A QUALITATIVE STUDY OF THE MINISTERIAL DIRECTIONS AND PASTORAL APPROACHES TO THE ISSUES OF THE OLD GENERATION IN THE KOREAN CHURCH

A Professional Project

presented to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by

Bon Chang

May 2019

This Professional Project completed by

Bon Chang

has been presented to and accepted by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of the

DOCTOR OF MINISTRY

Faculty Committee

Namjoong Kim, Chairperson

Namsoon Kang

Dean of the Faculty

Sheryl A. Kujawa-Holbrook

May 2019

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F THE MINISTERIAL DIRECTIONS AND PASTORAL APPROACHES TO THE ISSUES OF THE OLD GENERATION IN THE KOREAN CHURCH

by

Bon Chang

This thesis starts with the question, “what is the pastoral viewpoint of Korean church on the old generation?” Presently, Korean church, which has become hyper aging, is practising program-centered ministry only, for its hyper aged members. The church has to make a shift in the direction of its ministry for the old generation ever increasing in number. Korean church tends to consider the old generation as the object to be served, under the strong influence of the Confucian patriarchal value, which requires to serve and support the older people. They cannot be led to be healthy and sound believers if the church keeps practising its conventional ministry for them. The church should make a shift in the viewpoint, and the direction for its ministry, which will enable to place the old generation in the position of active participants. This thesis will suggest a new pastoral viewpoint on the old generation in church through a qualitative research with a theological point of view.

KEYWORDS: Old Generation, Routineness of Life, Obedience, Alterity, Small Room(Members of Small Room)

국문 초록

한국 교회 노년세대의 이슈에 대한 목회자의 방향성과 목회적 접근에 관한 질적연구

by

Bon Chang

한국 교회는 노년세대에 대해 어떠한 목회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 프로젝트는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한다. 초고령 교회로 진입한 지 이미 오래인 한국 교회의 상황 속에서 교회는 노년세대에 대해 일방적인 프로그램 중심의 사역만을 제시하고 있는 현실이다. 교회는 늘어가는 노년세대에 대해 근복적인 목회적 방향의 전환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 교회는 유교적 가부장제 아래에서 노년세대를 공경과 부양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섬김의 목회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늘어나는 교회 내 노년세대에 대해 공경과 부양만으로는 그들을 건강한 신앙인으로 이끌어 낼 수 없다. 이는 교회의 노년세대에 대한 목회적 방향성을 바꾸어야 가능한 일이다. 노년세대에 대한 목회적 관점은 그들을 주체적인 신앙인으로 다시 자리매김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이 프로젝트는 노년세대에 대한 목회적 관점을 새롭게 하는데 신학적인 관점과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KEYWORDS: 노년세대, 반복성의 일상, 순종, ‘다름(Alterity)’, 골방(골방회원)

SUMMARY

Korean church became aged with its more than 20% aged members. Korean society is becoming an aging society, also with its 14% of aging population, as of 2018. The church has far more aged members than korean society, and the number is rapidly increasing. Except for a few churches with special pastoral purposes, the aged members consist the largest part of the whole congregation. The ministry of the church does not properly respond to this situation.

Korean society has been dealing with conflicts, which emerged in the course of the unprecedented presidential impeachment in the year of 2017. The conflict was between conservatives and liberals, expanded to families and generations, going to extremes. Starting with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the conflict between the generations in Korean society made its way to church, causing troubles. Among them are inheritance of ministry, sexual assaults, embezzlement, and secret fund raising by ministers, which altogether led to degrade the reputation of Korean church. The conflicts in Korean society, politics, and church are getting deeper and deeper to the point that one party denies the other party's being itself.

The generational conflict in church is not new. There has always been a tension between the elderly people and (young) adults, caused by the Confucian patriarchal value of respecting and supporting the elderly in both society and church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is value, church has never failed to offer its best rooms, best food, and best programs to the old generation, in gratitude for their devotion for the revival of church. This thesis raises a question about the direction of church ministry at this point. Does church take the right direction for its old generation ministry?

This thesis aims to suggest a new direction for old generation ministry of church. A theoretical analysis will be carried out to find the position old generation take in church and

society. In-depth interviews with the old generation to listen to their stories were given to understand the situation in which they are in. Through these in-depth interviews, a qualitative research was made. The research found; first, the old generation of church are subject to the mixed ideologies of christian obedience and that of patriarchy; second, their religious lives are routines without change or growth; third, they feel alienated from their children in their social and religious lives.

Based on these findings, three suggestions are made. First, A practical viewpoint to overcome the mixed ideology of obedience and patriarchal elements in church is offered. Second, alterity is introduced to the old generation to get over the sameness of their routine, and to go for the community of alterity. Lastly, a new pastoral direction is suggested to treat the old generation with “metaphysical forgiveness”, and “You and me, the unconditional compassion.”

This thesis is not to develop the programs for the old generation in church, but to criticize the conventional pastoral direction for them, and to re-set the pastoral viewpoint, with the hope that it enables a new critical reflection on the pastoral direction for the old generation in church.

국문 요약

한국 교회는 교인의 노년세대 비율이 20%가 넘어 고령 교회(aged church)로 진입하였다. 한국 사회는 2018년 현재 전인구의 노년인구 비중이 14%를 넘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고 있다. 교회의 노년세대 비율은 한국 사회의 노년인구 비율보다 월등히 높으며, 증가 속도 또한 빠르다. 한국에는 특수한 목회를 지향하는 교회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교회의 노년세대의 전체 교인 구성 비율도 가장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목회적 방향성은 노년세대 목회를 향해 적절한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17년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과 더불어 촛불과 태극기로 대변되는 사회적 갈등이 형성되었다. 이 갈등은 정치적 진보와 보수의 갈등에서 가족 사이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으로 확대되어 더욱 극단화 되어가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 파면으로 시작된 한국 사회의 세대간 갈등은 이전과는 다르게 교회 안에서도 갈등요소로 작용한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형교회의 목회자 세습, 목회자의 성폭력 사건, 헌금 유용 및 비자금 사건들은 기독교 전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나락으로 이끌고 있다. 현재 한국의 정치, 사회, 종교적 상황에서 매우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 그것은 이전의 갈등보다 청장년세대와 노년세대의 갈등이 교회를 포함한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서로에 대한 '존재의 불인정'의 지경에 이르게 된 상황이다.

교회에서 노년세대와 관련된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노년세대와 청장년

세대의 갈등은 공경과 부양이라는 유교적 가부장제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회와 교회 안에서 늘 이어져왔다. 교회는 가부장제의 인식을 그대로 인용하여 노년세대에게 늘 좋은 방, 좋은 식사,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그들이 교회의 부흥을 이끈 주체였기 때문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 지점에 대한 목회적 방향성에 의문을 제기함으로 시작한다. 교회가 과연 노년세대에게 적절한 목회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프로젝트는 교회의 노년세대에 대한 새로운 목회적 방향성을 제시함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노년세대가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위치(position)에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진행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유교적 가부장제에 따른 노년세대의 위치, 사회적 상황 속에서의 그들의 위치, 교회에서의 노년세대의 현주소를 밝힌다. 또한 노년세대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어느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심층 면담을 통한 질적연구를 통해 노년세대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논증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 교회의 노년세대가 기독교적 순종과 가부장제적 순종의 혼용으로 인한 순종의 이데올로기화에 놓여 있는 세대이고 둘째, 노년세대의 신앙생활이 신앙의 성숙과 변화없이 주일마다 일상적으로 되풀이되는 반복성의 일상을 살고 있는 세대이며 셋째, 자녀세대와 신앙에 대한 대화 단절과 사회적 현상으로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외로움의 세대라는 것을 밝혀냈다.

이러한 현재 교회의 노년세대에 대해 교회와 목회자, 장년세대가 새롭게 고민해야 할 목회적 방향성으로 세 가지를 제언하였다. 첫째, 순종의 혼용에 대해서는 교회 내

가부장제적 요소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실천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주일, 반복성의 일상’에서는 노년세대에 대해 ‘다름(alterity)’의 시선을 제시함으로 ‘동질성(sameness)’의 폐해를 극복하고 ‘다름의 공동체(community of alterity)’로 나아가야 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단절의 세대, 외로움의 세대인 그들을 향해 ‘형이상학적 용서’와 ‘나와 너, 그리고 무조건적인 연민의 시선’을 목회적 방향성으로 삼아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노년세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것보다 지금껏 이어 온 노년세대를 향한 목회적 방향성을 비판하고 보다 근원적인 교회의 목회적 관점의 재설정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교회 내 노년세대의 목회적 방향성에 대해 새로운 비판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기를 바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Chapter I
서론(Introduction)

A. 문제제기(Meaning and Purpose of Study)

나는 사역했던 교회에서 노년세대와 청년세대 사역을 담당하였다. 특히 '문화교육원' 이라는 노년세대 사역은 1997년부터 실행하여 내가 속한 한국기독교장로회(이하 기장) 교단에서 가장 일찍 시작한 노년세대 목회 사역이었다. 이 사역은 많은 다른 교회의 노년세대 목회 사역의 롤모델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노년세대 사역을 하면서 목회적 만족감을 갖지 못했다. 그 이유는 청년세대 사역의 역동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년세대 목회는 정적이고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노년세대 목회가 왜 정체되어 있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지만 적절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나에게 노년세대 목회는 그저 기획된 프로그램에 한 명의 노인을 더 오게 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되어 갔다.

결국 나는 노년목회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교단의 교육을 담당하는 총회교육원에서 사역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곳에서 교단에 속한 많은 교회의 노년세대에 대한 목회적 흐름을 발견했다. 동시에 이전 노년세대 목회에 대해 고민했던, 그러나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고민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교단 산하 많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노년세대 사역이 매우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과거 노년세대 목회를 할 때의 기억을 되살리며 다시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과연 교회가 노년세대에 대한 목회적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는가?

한국 교회는 노년세대에 대해 어떤 목회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성장과 부흥,

대형교회를 지향하는 목회 흐름에서 노년세대에 대해 교회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의사가 있는가? 한국 교회는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증가동향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초고령 교회로 치닫고 있다. 또한 2017년 한국 사회는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을 맞이하며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유례없는 비정상적인 세대갈등을 겪고 있다.[1] 2018년 초에는 '미투(me too) 운동'이 일어나며 현재까지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한국 교회의 이해관계에 맞물려 교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높아져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한국 교회의 위기로 보고자 한다.

나는 한국 교회의 위기 중 노년세대 상황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서 노년세대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고령인구의 기준으로 삼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규정할 것이다. 다음세대는 교회 내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속한 사람으로 규정할 것이다. 현재 교회에서는 다음세대보다 노년세대의 증가율이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노년세대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교회의 목회적 관점은 여전히 다음세대, 청년세대, 장년세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한국 교회는 다음세대와 관련하여 그들의 부모세대인 장년세대와 적절한 피드백을 통해 목회 방향성을 설정한다. 청년세대는 사회적 상황까지 고려하여 그들에게 목회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노년세대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는 유독 유교적 가부장제의 산물인 공경과 부양을 기초로 한 프로그램 중심의 사역을 기획한다. 다시 말해 노년세대 목회와 관련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알아서 섬겨드리고 있다는 말이다. 65세 이상의 교인,

[1] 2017년의 한국 사회를 비정상적인 세대 갈등이라고 정의하는 이유는 갈등의 전개 과정이 일반적인 사회규범과 법 기준에 너무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파면을 찬성하면 무조건 빨갱이, 종북 좌파로 매도하는 상황, 세월호 인양을 찬성하면 역시 좌파로 매도하는 상황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다. 반대의 경우,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미친 노친네, 혹은 노망든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서로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떠한 토론과 논쟁도 필요 없이 진영이 구분되는 이 상황을 정상적인 갈등구조라 볼 수 없다.

흔히 할머니-할아버지라 불리는 그들은 한국 사회의 유교적 가부장제 안에서 '공경과 부양'의 세대일 뿐이다.

교회는 노년세대에게 예배실의 가장 좋은 자리로 '먼저' 안내한다. 교회는 그들에게 부탁하지도 않은 점심식사를 '먼저' 준비해 드린다. 교회는 그들을 위해 교회의 가장 좋은 방 하나를 '먼저' 제공한다. 노년세대가 교회 내에서 어떠한 불편함도 없도록 준비한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노년세대에게 제공하는 편리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는 점이다. 교회는 노년세대가 교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물어본 적이 있는가? 노년세대의 목회적 방향성에 대해 그들과 상의해 본 적이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 한국 교회는 심도있는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교회 내 노년세대 상황을 극복해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우리는 교회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노년세대가 교회에 대하여, 목회에 관하여 말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나는 이 프로젝트에서 노년세대의 이야기를 통해 교회가 노년세대를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알아보고 교회가 노년세대를 위해 기존에 유지해 왔던 목회적 방향성을 수정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B. 논지(Thesis)

한국 교회에서 노년세대를 위한 목회사역은 주로 예배사역과 심방사역, 몇몇 프로그램 중심의 사역에 머물러 있다. 예배사역은 교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에 이 프로젝트에서는 논외로 한다. 심방사역은 많은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프로그램 중심의 사역은 중대형교회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노년세대에 대한 교회의 관심은 다음세대나 경제활동을 하는 장년세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중요한 사실은 노년세대가 교인 구성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과거 교회의 주체가 되어 신앙생활을 하며 현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헌신했던 이들이다. 하지만 고령이 되었다는 이유로 교회 안에서 점점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가 급변하는 교인 구성원의 변화에 따른 목회적 대안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에서 '노년목회'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101편의 학위논문에 대해 주제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101편의 논문 중 목회상담 관련 논문이 30%(30편), 복지 관련 논문 23%(23편), 노년목회 프로그램 관련 논문 22%(22편), 기독교교육 관련 논문 11%(11편), 교회성장 관련 논문 10%(10편), 예배학 관련 1%(1편), 기타 4%(4편)로 나타났다. 이중 복지 관련 논문은 거의 대부분 사회복지사업과 연관된 노인복지에 대한 주제였다. 결국 교회 내의 노년목회에 대한 관심은 목회상담을 통한 개인적인 차원의 돌봄이나 프로그램 중심의 목회 방안에 머물러 있음이 드러났다. 101편의 논문 중 노년세대에 대한 교회의 목회적 방향성을 제시한 논문은 단 한 편도 없었다. 이 논문이 한국의 여러 신학대학원의 학위 논문임을 미루어 볼 때, 현재 한국에서 노년세대에 대한 고민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2]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에서 노년세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노년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더 많은 노년세대 대상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프로그램 중심의 사역은 교회 및 목회자가 노년세대에게 제공하는 일방형 사역일 뿐이다. 교회 내 다음세대나 장년세대의 목회적 방향성을 떠올린다면

[2] 이 조사는 본인이 직접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검색하여 진행하였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kr) 참조.

노년세대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일방형 사역인지 여실히 드러난다. 다음세대, 장년세대의 목회적 방향성은 그들과 교회, 그들과 목회자 사이의 양방형 소통을 통해 목회적 방향성을 설정한다. 하지만 노년세대를 바라보는 관점은 양방형 소통과는 거리가 있다. 교회나 목회자가 중심이 되어 특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안에 노년세대를 참여시키려는 경향이 강하다.[3] 노년세대에 대한 일방형 사역의 이면에는 한국 사회의 노년세대에 대한 고정된 선입견이 존재한다. 노년세대는 '공경(恭敬)'과 '부양(扶養)'의 대상이며 보살핌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 주장은 유교적 가부장제 아래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규정일 수 있다. 하지만 급변하는 사회와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오늘날, 그 흐름 안에서 교회 내 노년세대를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한국 사회의 노년세대에 대한 인식은 교회 안에서 더욱 보수적으로 작용한다. 직분자로서 은퇴식을 마치면 그들은 교회 안에서 골방회원이 될 뿐이다.[4]

주일 교회에 있는 노년세대의 동선을 살펴보면 그들이 얼마나 교회 내에서 주변부로 밀려나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노년세대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공동식사를 하고 거의 대부분 자신들의 방에서 자신들만의 대화를 나눈다. 이것이 전부이다. 많은 목회자들이 노년세대가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늘 그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목회적 방치일뿐이다. 방치는 그냥 내버려 둠을 의미한다. 교회는 교인의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

[3] 나는 내가 속한 기장 서울노회 소속 교회에 대해 노년세대 관련 사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노회소속 전체 46개 교회 중 노년세대 관련 사역을 진행하는 교회는 7곳이었는데 전부가 교회나 목회자가 기획하여 일방형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심 사역이었다.

[4] '골방회원'이라는 개념은 프로젝트를 위해 내가 만들어낸 개념이다. C. 용어정리 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노년세대를 방치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오히려 극진한 보살핌으로 대접하고 있다고 답할 것이다. 하지만 주일 교회 안에서 노년세대의 일정은 정확하게 일주일에 한 번 반복되는 일상일 뿐 삶의 변화나 신앙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교인의 삶의 변화나 신앙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사역은 목회적 방치일 뿐이다. 언제까지 노래교실에 모여 '내 나이가 어때서'를 부르며, 언제까지 차려주는 식사를 하며, 언제까지 똑같거나 비슷한 프로그램을 반복할 것인가?

프로그램 중심의 노년세대 사역이라도 진행할 수 있는 중대형 교회는 그나마 다행이다.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많은 교회에서 노년세대는 주일에 '반복성의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년세대는 대체로 주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차려 준 식사를 하며, 그들만의 골방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하고 돌아간다. 신앙 생활이 삶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한 행함의 과정이라 할 때, 노년세대의 주일 일정은 일주일에 한 번 매주 반복되는 삶의 패턴일 뿐이다(약 2:14-17, 개역개정). 그들은 변화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기는커녕 '골방회원'으로서 교회 안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다. 이런 상황에서 나의 문제제기는 다음과 같다. 노년세대가 반복성의 일상을 너머 새로운 주체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것인가?

2018년 8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고령인구 비율은 14.2%로 이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를 너머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하였다.[5] 이에 비해 현재 내가 소속해 있는 기장 소속 교회는 이미 초고령 교회로 진입하였다. 65세 이상

[5] 통계청, *2017 인구주택총조사* (서울: 통계청, 2018), 2.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는 총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7%이상일 때, 14%이상일 때 고령사회(Aged society)라 칭한다.

교인의 비중이 전체 교인의 30%를 넘는 교회가 교단 전체 교회의 2/3를 넘어서고 있다.[6] 노년세대의 증가는 교회 안에서 다른 세대와 많은 신앙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서 딜레마가 발생한다. 주체에서 주변부로 밀려나는 노년세대라면 당연히 교회 내 영향력은 미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골방에 앉아서도 교회 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교회 내 많은 세대 갈등은 노년세대의 골방에서 시작한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교회의 고령화 추세가 한국사회 전체 인구에 대한 고령화 추세보다 월등히 빠르다는 점이다. 게다가 한국의 출산율은 2016년 현재 1.25명으로 OECD 35개국 중 꼴찌, 조사대상 224개국 중 220위이다.[7] 이러한 현상은 교회에 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65세 이상의 교인은 날로 늘어나고, 다음세대 및 청년세대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목회적 관심은 다음세대와 청년, 장년세대에 머물러 있다. 교회 내 노년세대를 공양과 부양의 대상이 아닌 목회의 주체로 인식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그들을 사역의 중심으로 이끌어 낼 수는 없는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가 그 동안 가져왔던 노년세대에 대한 목회적 관점을 새로운 목회적 방향과 관점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겠는가?

교회와 목회자가 노년세대에 가져야 하는 인식의 전환 말고도 매우 중요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지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교인들의 노년세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 교회는 일반적으로 전 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히 유교적 가부장제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한국사회에서 교회만큼 전 세대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산업화 이전까지 교회는 사회가 요구하는 세대 간의 예절과 규범을 그대로 따랐다. 집안에서 어른이면

[6]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제101회 총회 보고서* (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2016), 645-48.

[7] 이현미, "한국 출산율, 세계 꼴지 수준… 삶의 질의 문제," *중앙일보*, March 20, 2017,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3/20/20170320003204.html?OutUrl.

교회에서도 어른이기에, 공경과 부양의 의무를 사회와 교회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산업화, 분업화, 다양화, 현대화된 사회에서는 노년세대에 대한 공경과 부양이라는 유교적 이념을 이전처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다양화된 사회만큼 전 세대의 사고방식 조차도 다양화된 것이다. 이로 인해 세대 간의 갈등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즉 노년세대를 공경하고 부양하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하는 세대와 나와 자녀의 삶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는 세대, 나를 세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대가 마치 물과 기름처럼 나뉘게 되었다. 즉 비중 있게 생각하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세대별로 뚜렷하게 달라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교회라는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 결국 중요한 점은 사고방식이 서로 다른 세대간의 인식을 어떻게 균형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목회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세대 간의 갈등이 만연한 상황에서 노년세대에 대해 교회가 제공하는 목회적 방향의 재고만으로는 노년세대의 상황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남순은 코즈모폴리턴 이상을 “지구에 존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자신의 외적 조건에 상관없이 한 ‘인간’으로서 권리와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보호하고 지속하기 위한 정의와 연대”로 정의한다.[8] 교회의 교인도 아닌 교회 밖 타인에게도 그러할진대 현재 교회의 구성원들은 노년세대에 대해 그들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있는가? 혹시 나이듦에 따라 은퇴라는 명목 아래, 공경과 부양이라는 이름뿐인 유교적 가부장제 이념 안에, 편히 쉬시라는 미명 아래 좋은 골방 안에 그대로 모셔 두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 안에 같은 교인도 환대하지

[8]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21세기 영구적 평화를 찾아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131.

못하면서, 어떻게 진정한 환대를 논할 수 있겠는가? 교회는 노년세대에 대해서 그들의 자녀세대인 장년세대와 장년세대의 자녀세대인 다음세대가 어떻게 서로를 생각하고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회적 방향을 제시해야만 한다.

나는 이 프로젝트에서 교회가 새롭게 가져야 할 노년세대에 대한 목회적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별히 각 교회에서 반복성의 일상으로 말미암아 골방회원이 되어버린 노년세대에 대한 목회적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회는 교인의 신앙과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과정이다. 하지만 다른 세대에 비해 노년세대는 교회에서조차 그들에게 신앙과 삶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늙어간다는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쇠약해져 간다는 이유로 교회는 그들을 돌보기만 할 뿐 진정한 목회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그들이 교회에 앉아서 담소를 나눌 공간이라도 있다면 그저 감사하고 행복할 뿐이다.

한국 교회는 모든 세계에 유례없는 성장 속도로 지금에 이르렀다. 초대 교회에서 중세 이후까지 이천 년에 걸친 교회의 역사를 단 이백 년 안에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과 함께 이천 년 교회의 역사가 그러했듯이 교회의 타락과 부패의 부작용도 동반하였다. 타락과 부패는 쇠락을 가져온다. 중세 교회가 이를 증명한다.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교회가 교인의 신앙과 삶의 변화에 무관심해 지는 순간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키프리안(Caecilius Cyprianus)은 "당신이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9]고 하였다. 중세 교부 어거스틴(St. Augustine)은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의 교회를 사랑합시다. 전자를 아버지로서, 후자를 어머니로서" 라고

[9] Cyprian, *On the Unity of the Catholic Church* vi, LCC Ⅴ, 127-28, quoted in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5), 207.

하였다.[10] 칼뱅(Jean Calvin)은 기독교 강요 4장에서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라고 말한다.[11]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노년세대에 대해 부모처럼 가르치고 양육하고 성장하도록 돕고 있는가? 노년세대에 대한 교회의 무관심은 마치 직장에서 퇴직하면 아무도 찾지 않고, 어떤 역할도 없이 사회의 변두리로 내몰린 이들의 상황과 흡사하다.

교회 내에서 노년세대의 목회적 상황을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첫째, 노년세대는 앞으로 인구 동향으로 미루어 볼 때 필연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에 비해 다음세대와 청년세대, 3-40대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평신도 지도자를 세울 교인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교회 내 세대 갈등의 결과가 노년세대보다는 젊은 세대의 이탈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공경과 돌봄의 대상으로서 노년세대 사역은 결과적으로 그들의 신앙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교회는 노년세대에 대한 전향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노년세대를 공경과 부양, 보살핌의 세대라 규정하는 낡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전 세대가 노년세대를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노년세대의 상황은 교회의 전 세대가 함께 고민하고 이해하고 함께 방향성을 만들어가야 하는 목회적 과제이다.

C. 용어정리(Terminoiogy)

1. 노년세대, 고령세대

이 프로젝트에서 노년세대는 65세~70세 이상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규정한다. 65~70세의

---

[10] Augustine, *Corpus Christianorum Series Latina,* vol. XXXIX, 1244 (Tournhouti: Typographi Brepols, 1956), quoted in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5), 207.

[11] John Calvin, *기독교 강요4 (상),* trans. 고영민 (서울: 기독교문사, 2008), 36.

기준은 직분자 은퇴연령과 연관이 있다. 교회는 직분을 은퇴할 때 은퇴장로, 명예권사, 은퇴집사 등으로 분류한다. 현재 기장은 자원은퇴 65세, 은퇴 70세로 규정하고 있다.[12] 이 프로젝트에서 노년세대는 교회의 주체에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주변부로 밀려나는 세대로 정의할 것이다. 다만 통계청의 통계를 인용한 부분에서는 통계청이 사용한 고령세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2. 다음세대와 장년세대

다음세대는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을 칭한다. 현재 교회의 주 교육 대상자이기도 하다. 다음세대는 노년세대의 상반되는 개념은 아니다. 세대 구분을 위한 개념이며 구분 자체에 비평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특별히 20대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청년세대를 사용할 것이다. 장년세대는 30세에서 65세 미만의 세대를 통칭한다. 교회 내 사역의 중심세대이며 주로 경제활동을 하는 세대이다. 장년세대는 다음세대와 노년세대 사이에서 그저 거쳐가는 정류장 같은 의미만을 갖지는 않는다. 오히려 노년세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다음세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이 주어지는 세대이다. 또한 장년세대는 교회의 목회적 방향성을 수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세대이기도 하다.

3. 순종

이 프로젝트에서 순종은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것은 ‘기독교적 의미의 순종’과 ‘가부장제적 의미의 순종’이다. 강남순은 기독교적 의미의 순종을 “하나님에게의 순종이며 하나님의 뜻과 의에의 순종”[13]이라고 정의한다. 가부장제적 순종은 “남성에 대한

---

[12]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헌법* (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출판사, 2018), 112.
[13] 강남순, *21세기 페미니스트 신학: 주제와 과제* (서울: 동녘, 2018), 345.

여성의 의존과 순종"[14]으로 규정한다. 기독교적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분의 정의와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은 예수의 삶에 나도 동참하는 결과를 얻게 한다.[15]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신앙인은 신앙의 성숙과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가부장제적 순종은 그 근원이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게 하는 기재로 사용되는 것이지만 나는 이 프로젝트에서는 남성 가장에게만이 아닌 노년세대에게 확장된 의미의 가부장제적 순종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가부장제 아래에서 가부장제에 순응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여성은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둘 중에 하나뿐인 선택, 즉 순응만을 선택하도록 강요받았다.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과 거부는 곧 자신의 철저한 소외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고 보수적인 한국 교회의 신앙과 맞물려 여성은 가부장제에 순응하며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 생존의 테크닉으로서 순응하는 삶은 여성이 가부장제의 피해자에서 가부장제에 흡수된 존재로 나타난다. 가부장제의 피해자가 가부장제를 재생산하는 공모자가 된 것이다.[16] 이 프로젝트에서 논하는 가부장제적 순종은 이렇게 확대 재생산 된 순종을 의미한다. 그것은 가부장제적 순종의 의미를 노년세대 전체에 적용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또한 두 가지 순종을 교회 내에서 혼용함으로서 생기는 목회적 상황에 대해서도 논하고자 한다.

4. 골방, 골방회원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골방 또는 골방회원이라는 표현과 의미는 내가 직접 부여한 것이다. 골방은 큰 방의 뒤편에 딸린 작은 방을 의미한다. 골방을 주 생활공간으로 사용하는

---

[14] 강남순, *21세기 페미니스트 신학: 주제와 과제,* 349.
[15] Ibid., 345-46.
[16] Ibid., 349-50.

경우는 많지 않다. 많이 사용하지 않는 가재도구나 중요하지 않은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의 개념으로 많이 사용해 왔다. 사람의 왕래도 잦지 않다. 골방은 일반적으로 학문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나는 이 프로젝트에서 아래와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골방은 이중성을 가지는 공간이다. 하나는 '배타성(exclusivity)의 공간'이고 다른 하나는 '소외감(alienation)'의 공간이다. 이중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러한 감정을 갖는 대상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장년세대와 청년세대가 골방을 바라볼 때 노년세대를 위한 골방은 노년세대만이 사용할 수 있는 '배타성의 공간'이다. 노년세대가 아닌 사람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장소, 방문하기 껄그러운 공간이다. 그러나 노년세대가 느끼는 골방은 '소외감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교회의 현직에서 은퇴한 후 머물러야만 하는 공간, 젊은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음으로 인해 기거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 바로 '소외감의 공간'으로서 갖는 골방의 의미이다. 이러한 골방의 이중성은 수많은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 교회 전체를 힘들게 하는 여론을 형성하기도 하고, 노년세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며, 소외 당하기도 하고, 소외 시키기도 하는 다양한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를 오래도록 이끌어온 유교적 가부장제의 서열, 위계구조에 기인한다. 이러한 골방의 이미지를 현재 교회의 노년세대가 머물고 있는 원로장로실, 은퇴권사실, 기타 노년세대가 머물고 있는 방에 빗대어 사용하였다. 멀쩡한 방이지만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들여다 보지 않는 방, 오직 그들만이 들어가서 그들만의 대화와 그들만의 사고방식을 공유하는 방, 이것이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골방의 정의이다. 그 방에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총칭하여 골방회원이라 하였다.

5. 반복성의 일상

‘반복성의 일상(routineness of life)’은 본 프로젝트를 연구하기 위해 개념화한 것이다. 반복성의 일상은 노년세대가 주일 집에서부터 교회에서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전체를 의미한다. 나는 노년세대가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차려주는 식사를 하고, 골방에 모여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다 다른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일과가 일주일에 한 번 반복해서 일어나는 행위로 본다. 이런 부정적 의미로 그들의 주일 신앙생활을 표현하는 이유는 노년세대가 주일 신앙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의 변화를 전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일에 한 번씩 매주 반복하는 것, 이것을 반복성의 일상이라 정의하였다. 반복성의 일상은 원래 ‘루틴으로서의 일상’이라는 표현으로 개념화한 것이다. 그런데 교수위원회에서 루틴이라는 단어가 일상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개념의 모호성이 크다는 점, 번역 가능한 한국어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인정하고 반복성의 일상으로 수정하였다.[17]

6. ‘다름(alterity)’

‘다름(alterity)’은 한국말로 번역하기 어려운 ‘다름’이다. 다름은 보통 ‘차이(difference)’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비교 대상에 존재하는 다름이다. 예를 들어 ‘동질성의 공동체(community of sameness)’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동질성(sameness)’이란 다수의 주장과 의견이 지배하는 동질성이다. 결국 동질성이라는 개념이 소수의 의견이나 사람을 배제 또는 소외시킬

---

[17] 전민수, “치과용 CAD/CAM 스캐너의 반복성 및 재현성 평가 방법 개발=Repeatability and reproducibility evaluation of dental CAD/CAM scanners” (PhD diss., 경북대학교 치의대학원, 2014) 참고.
한국어로 반복성은 보통 ‘repeatability’로 번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의학계와 이공계에서 실험 후 반복해서 얻어지는 같은 확률을 의미하는 ‘반복가능성’ 또는 ‘재현성’으로 사용하는 전문용어이기에 이 프로젝트의 사용하고자하는 반복성의 의미와는 다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안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고자 ‘routineness of life’로 영어 표기하였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배제와 소외를 가능하게 하는 다름이 바로 '차이(difference)'이다. '다름(alterity)'은 이러한 동질성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다름이다. 이 '다름'은 대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름이다. 이것은 개별성이나 고유성과 가까운 다름이다. 이런 개념으로 공동체를 구성한다면 모든 사람이 고유한 '다름'을 지닌 공동체, 소수의 사람들도 존재 차제의 의미를 가지고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비교 대상이 없는 다름, 대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름, 개인의 개별성이나 고유성을 인정하는 다름이 바로 '다름(alterity)'이다.[18] 교회는 개인이 모인 공동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회가 '다름'의 관점을 가진다는 것은 노년세대와 다른 세대가 갖는 '나이차별주의(ageism)'의 양면성을 극복하고, 교회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평등한 교회 교동체의 시발점이 되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D. 청중(Audience)

이 프로젝트의 주된 청중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세대에 관심이 있는 모든 목회자이다. 목회자가 속한 교회에서 노년세대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의 방향성이 노년세대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노년세대에 대한 목회적 방향성의 전환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회의 장년세대이다. 그들은 노년세대의 자녀세대이다. 특별히 장년세대가 노년세대와 세대 갈등을 겪고 있다면 이 프로젝트는 그들에게 더욱 중요하다. 장년세대가 중요한 청중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장년세대는 자신이 자녀로서 노년세대에 대한 인식과 교인으로서 노년세대의 인식 사이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이 프로젝트는 중요한 인식적 해결점을

[18] 강남순, *21세기 페미니스트 신학: 주제와 과제*, 67–68.
강남순, "Gender–related Conflicts, Healing, and Transformation in the Korean Church and Society" (lecture, D.Min. Intensive,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Claremont, CA, 05/29/17~06/02/17).

제시할 수 있다.

부차적 청중으로는 노년세대(1대)와 장년세대(2대)를 모두 모시고 함께 신앙 생활을 하는 자녀세대(3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세대는 현재 교회의 장년세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장년세대는 교회의 중심이 되는 세대이다. 그들은 1세대인 노년세대를 모시고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3세대 자녀세대들에게 자신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노년세대에 대한 전 세대의 통전적 이해를 위해 자녀세대를 부차적 청중으로 설정하였다.

E. 범위와 한계(Scope and Limitations)

이 프로젝트는 교회의 노년세대에 적합한 목회적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교회의 노년세대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 집중한다. 따라서 기존의 노년세대 목회 프로그램을 분석하거나 비판하는 작업,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대안적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다. 오히려 목회자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여 기존의 프로그램 중심 사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목회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노년세대와 심층 면담을 진행함으로써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 심층 면담을 통해 노년세대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일에는 집중하지 않을 것이다. 노년세대와 대화를 통한 결과물이 노년세대 목회에 대한 새로운 목회적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둘 것이다. 다만 새로운 목회적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의 노년세대 대상 목회에 대한 고찰은 진행할 수 있다.

교인들의 인식전환은 존재론적 의미, 신학적 의미에서 단초를 제시할 것이다. 아직 노년세대를 경험하지 못한 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단순히 공경과 부양의 세대가 아닌 '다름'을

전제로 한 '인간'으로서의 존중, 무조건적인 연민의 시선을 통해 노년세대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이 부분은 노년세대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와 신학적 연구를 통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교회 내 모든 세대에 대한 통전적인 상호 이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노년세대의 신체적인 특징이나 정서적인 특징을 나열하지 않는다. 노년세대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특징은 기존의 연구를 통해 충분하게 분석되었고 어느 정도 학문적인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19] 교단의 여러 상황에 대한 통계자료와 인구조사, 한국의 종교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는 현재 노년세대 혹은 기독교의 인식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제한하여 사용할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한국 사회, 정치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굳이 사회에 대한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이 논문을 쓰는 시점에서 한국 사회는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세대 간의 갈등을 맞이하고 있고 더불어 교회도 그 갈등 구조를 양산하는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20] 하지만 사회학적 분석이 한국 사회 내 세대 갈등을 치유하는 대안으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 프로젝트가 실천신학을 지향하는 목회학 관련 논문이기 때문이다.[21] 다만 이 분석은 교회 내 갈등 구조를 논하고 노년세대에 대한

[19] 강혜정, "고령화 사회의 노인 커뮤니티 시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PhD diss.,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and 임지숙, "한국 노임들의 '가능한 자기(possible selves)' 참색과 삶의 만족 및 우울과의 관계" (PhD diss.,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5) 참고.

[20] 2019년 한국의 사회, 정치적 상황은 다음과 같다. 2018년 8월 24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된 대통령에게 법원은 2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였다. 촛불과 태극기로 대변되는 진보, 보수진영의 대립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2018년 2월에는 문화예술, 종교, 대학, 방송 영역에서 성폭력과 관련된 미투운동이 진행 중이다. 이 모든 사건에서 교회는 자유롭지 못하다.

[21] 나는 CST D.Min. 과정 중에 있다. CST D.Min. 과정은 분명한 방향성을 언급한다. 갈등, 치유, 변화를 위한 실천신학(D. Min. in Practical Theology of Conflict, Healing, and Transformation)이 그것이다. 나는 이 방향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중요한 지점은 이 방향성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갈등구조에서, 치유과정에서, 변화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소수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어려움을 교회

이해를 돕는 데에는 적극 활용할 것이다.

F. 독창성과 공헌(Originality and Contribution)

노년세대에 대한 목회적 관심에 대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많은 연구들이 노년세대에 적합한 프로그램, 커리큘럼, 선교정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22] 그 연구의 결과물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초고령 교회로 이미 진입한 상황에서 교회 내 노년세대의 비율은 적게는 20%에서 농어촌교회의 경우 7~90%를 넘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프로그램 중심, 커리큘럼 중심의 노년세대 목회는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프로젝트의 독창성과 공헌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노년세대 관련 논문과 달리 노년세대 목회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청한다. 둘째, 이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학술적 이론과 심층 면담을 통해 교회의 노년세대 비중이 높아지는 현실에 적합한 목회 패러다임의 관점과 방향전환을 요구한다. 셋째, 이를 통해 노년세대가 새롭게 교회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세대의 인식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공동체에서 함께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을 고민해 내야한다는 것이다. 내가 수년간 배운 실천신학은 교회의 교역을 위한 목회자의 목회 안내지침에 가까웠다. 따라서 나는 이 프로젝트에서 언급하는 실천신학을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바로 서게하고, 차별없이 공평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위해 행하는 교회의 모든 노력"으로 정의한다.

[2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신병련, "노인대학을 통한 노인세대의 신앙활성화 방안 연구" (DMin project,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7), 이찬영, "노인교육목회를 통한 교회 활성화 방안" (DMin project, 장로회신학대학교, 2006) 참고.

Chapter Ⅱ
이론적 배경(Theoretical Backgrounds)

교회는 왜 노년세대에게 적절한 목회적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교회 내 노년세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정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노년세대의 '위치(position)'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굳이 상태나 형편, 사정을 의미하는 'state' 대신 '위치'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위치를 부여하는 기준으로 내적 조건, 외적 조건이 모두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노년세대의 위치를 공경과 부양의 세대로 정의하는 기준은 유교적 가부장제 아래에서 사회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위치에 대한 외적 조건이 작용한 예이다. 반면 노년세대가 스스로 대접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그들의 내적 조건으로 스스로의 위치를 부여한 예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 두 가지 측면 모두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래야만 노년세대에 대한 적절한 교회의 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노년세대의 위치에 대한 이러한 조건이 작용하여 그들의 위치를 인식하게 하는 이론적 근거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A. 유교적 가부장제의 변화에 따른 노년세대의 위치(The Position of Old Gen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Confucian Patriarchy)

한국 교회의 노년세대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노년세대의 대한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노년세대는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경제활동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의미한다. 사회에서도 노년세대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등 적절한 사회복지

체제를 구축한다. 대중교통 수단의 무료이용도 노년세대를 배려하는 정책이다. 충분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세대, 게다가 신체적 쇠약으로 인해 사회적 이동권 조차 충분히 지니지 못한 세대가 바로 그들이다. 게다가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유교적 가부장제 아래에서 살아왔다. 유교적 가부장제는 노년세대를 헌신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노년세대에 대한 입장은 예절과 규범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미덕으로, 당연히 지켜야만 하는 의무로 자리매김하였다.

문제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유교적 가부장제에 대한 현실적인 반감과 인식적인 반감이 포화상태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급격하게 늘어나는 1인 가구를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노년세대에 대한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은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다.[23] 1인 가구 구성원이 모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이것은 현실적인 반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의미로 2017년 이후 '태극기-촛불'이라는 정치적인 대립으로 극단화되어 있는 양상 안에 있는 자녀세대는 노년세대를 '그저 저러다가 죽을 세대'로 규정해 버린다. 대화를 해도 통하지 않는 세대, 자기 주장에 대해 그저 억지만 부리는 세대, 그래서 대화하기보다는 포기해 버리는 '단절'의 세대가 바로 노년세대이다. 이것은 노년세대에 대한 인식적인 반감이다. 특별히 전직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 이후 촛불세대와 태극기세대의 갈등은 2018년 한국 사회를 사상 유례없는 비정상적인 세대 갈등으로 몰아넣었다. 유교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안에서 살아온 세대와 그것을 비판하며 진부한 전통을 벗어나려는 세대와의 갈등은 정치적 갈등과 맞물려 매우 혼란한 양상으로 빠져들었다.

---

[23] 통계청, *2017 인구주택총조사*, 37.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1인 가구 연령구성 중 40대 이하의 구성비 51.6%인 것으로 나타났다. 50대를 포함할 경우 60%가 넘는다.

강남순은 전통적 가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 가족을 사적 영역으로만 규정하고,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사회-정치적 상호 연관성을 보려고 하지 않는 문제가 한국과 같은 유교 문화에 강한 영향을 받는 사회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부장제 유교 이념 아래에서는 모든 가족 구성원의 문제를 가장이 다스리는 사적영역으로 규정하고 가정에 대한 사회적 개입을 부당한 것으로 간주한다.[24]

유교적 가부장제 아래에서 노년세대의 위치(position)는 중세 봉건사회의 영주가 가졌던 권력과 흡사하다. 모든 가족이 한 담장 안에서 살아가던 대가족 시대에 나이든 세대의 권력은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산업화와 가족의 주거 형태가 바뀌면서 유교적 가부장제의 흐름은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절대적 권력의 소유자인 가장을 떠나 부모와 자녀만이 사는 가족, 혹은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폐쇄적인 대가족 개념이 흐트러진 것이다. 그렇다고 유교적 가부장제 인식 자체가 사라지거나 약화된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혼란이 가중된다. 삶의 형태는 가부장제를 탈피한 것으로 보이나 인식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오는 혼란이 생겨난 것이다.

유교적 가부장제의 형식 구조가 변화했다는 것이 가부장제의 인식의 변화를 충분히 담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남으로 생기는 혼란은 또 있다. 1970년대 이후 서구권에서 생겨난 신보수주의적 가족 가치의 부활이나 2000년 초반 한국에서 전통적인 효의 부활을 시도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부부 사이의 남성중심적 가족관계를 새로운 형식으로 복원하려는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를 전제로 하고 있다.[25] 결국 현대 사회에서 전통적 가족관계의 형식적인 변화와 유교적 가부장제의 인식적 변화는 탈가부장적 관점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

[24] 강남순, *21세기 페미니스트 신학: 주제와 과제*, 289.
[25] Ibid., 292-94.

이러한 가족관계의 변화와 유교적 가부장제의 변화 속에서 노년세대의 위치는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와 달라졌다. 전통적인 가족관계에서 노년세대는 함께 살아가는 집 안에서 군림하는 절대적 가장의 권한을 지녔다. 그러나 지금은 함께 산다는 것과 함께 사는 집이라는 개념이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세대는 공경과 부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른 집에서 각자 살면서 멀리 떨어져 사는 그들에게 말이다. 현대의 노년세대는 자녀세대와 자신의 삶을 공유하지 않는다. 결국 현대사회에서 노년세대의 위치는 전통적 가족 형식에서 벗어나 다른 집에서 살지만, 가부장제의 인식 아래에 그대로 놓여 있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세대가 되어 버렸다.

B. 사회적 상황에 따른 노년세대의 위치(The Position of Old Generation in the Social Context)

2019년의 한국 사회는 극과 극의 대립으로 가득차 있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그 해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전 야당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정권 교체를 맞이하였다. 최순실의 태블릿으로 시작된 의혹 제기가 2년 동안 한국 사회를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 집단이 생겨났다. 바로 촛불세대와 태극기세대가 그것이다. 이전 정권까지 정치와 사회를 양극화했던 프레임은 진보-보수, 좌파-우파 프레임이었다. 그러나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을 겪으며 진보와 보수 진영은 각각의 상징을 가지게 되었다. 박근혜 탄핵을 지지하는 세력은 촛불을 밝혔고,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은 태극기를 들었다. 촛불과 태극기는 대한민국을 절반으로 갈라 놓았다. 그 여파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디든지 작용하였다. 심지어 교회까지도 말이다. 나는 대통령이 파면되던 다음 주일 모교회 예배에서 어느 장로의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들었다. 그 저주는 촛불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저주였다. 몇몇

성도는 기도가 끝나기 전, 예배실에서 나가버리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다. 기도를 했던 장로는 은퇴를 앞둔 시무장로였다.

아무리 예민한 사안의 문제라도 교회에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공론화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많은 교회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로 그 예민함을 피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촛불-태극기로 대변되는 이 시간만큼은 교회를 지나쳐가지 못했다. 바로 교회 내의 노년세대와 장년세대의 갈등이 대통령 탄핵과 파면의 과정을 통해 드러나게 된 것이다. 대통령 파면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이 갈등하는 기사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26]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의 다양한 정치-사회 세력은 사회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상호 견제와 비판, 이를 통한 내적 변화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촛불세대와 태극기세대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 다다랐다.

캐스 R. 선스타인(Cass R. Sunstein)은 이러한 현상을 '집단극단화(group polarization)'로 표현한다. 선스타인은 비슷한 사고를 가진 집단이 모여서 대화나 토론을 하고 나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성향과 같은 방향을 유지하면서 더 극단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한다.[27] 그 이유는 자기와 유사한 생각을 갖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가진 기존의 견해를 더 강화하기 때문이다.[28] 또한 '집단극단화'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26] 신동윤, "[탄핵 후폭풍, 세대갈등①] 싸움날라, 朴이야기 금기…부자 사이도 갈라놨다," *헤럴드경제*, March 14, 2017,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314000115.

[27] 캐스 R. 선스타인,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 (서울: 프리뷰, 2014), 12.

[28] Ibid., 19.

> 집단극단화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리고 모든 형태의 극단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새로운 정보의 교환이다. 집단극단화는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서로 이야기하고, 그 말하는 내용이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진행돼 나아갈 때 흔히 일어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신의 생각이 움직이는 것이다.[29]

선스타인은 '집단극단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그들이 공유하는 정보라고 말한다. 이 정보를 공유하는 현대의 가장 중요한 힘은 사회적 네트워크이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개인 SNS를 통해 전파되며, 이같은 정보는 같은 성향을 가진 집단만 공유하는 정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톡이나 유튜브를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30] 결국 촛불세대는 자신의 성향과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각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그들만의 정보를 공유한다.[31] 태극기세대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자신의 집단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더욱 극단화되어 가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의 노년세대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문제는 태극기세대나 노년세대가 공유하는 메신저의 정보들이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가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태극기세대는 촛불세대나 젊은 세대보다 훨씬 더 강한 극단화 성향을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한국의 사회적 상황에 따른 노년세대의 위치는 집단극단화 현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이 공유하는 정보의 오류, 부정확함 때문에 더욱 편향적인 성향을 띨 수밖에 없는 고립된 상황이라 말할 수 있다.

C. 기장 교단 내에서 노년세대의 위치(The Position of Old Generation in P.R.O.K.)

나는 기장 서울노회 소속 목사이다. 내가 속한 기장은 전국 28개 노회로 구성되어 있다.

---

[29] 캐스 R. 선스타인,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 39–40.

[30] 정재림, "가짜뉴스 놓고 응징–보복, 난장판 된 유튜브," *CBS노컷뉴스*, October 5, 2018, http://www.nocutnews.co.kr/news/5040314.

[31] 캐스 R. 선스타인,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 43–44.

그 중 서울노회는 서울의 강북 중심부에 속해 있다.[32] 2018년 11월 현재 총 47개의 교회가 소속되어 있다. 47개의 교회 중, 장로가 시무하는 조직교회는 32개, 시무장로가 없는 미조직교회는 9개이며, 개척교회는 6개이다. 시무하는 목사는 184명이며, 장로는 124명이다.[33]

나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32개 조직교회 중 27개 교회에 대해 65세 이상 노년세대의 비율을 전수조사하였다. 각 교회의 행정 및 장년을 담당하는 목회자와 직접 전화 통화하여 조사한 결과, 노년세대 비율이 20% 이상인 교회가 24개로 나타났다. 50%가 넘는 교회도 무려 14개였다. 국세청 인구조사에서 전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조사결과 서울노회 조직교회 중 80%가 넘는 교회가 이미 초고령 교회로 진입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노년세대 교인 비중이 20%가 되지 않는 교회가 대학가 주변의 청년대상 목회, 그 외 특수목회를 하는 교회임을 감안할 때 서울노회의 고령화 현상은 기장 서울노회에 소속된 교회 전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기장 교단 전체를 놓고 본다면 교회의 고령화 현상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기장 제103회 총회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노회는 전 교인대비 70세 이상 노년세대의 비중이 29%(1211명/4086명) 이른다. 이 보고서의 통계는 70세 이상 교인을 산정한 수치이므로 65세 이상 교인까지 포함할 경우 노년세대 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서울노회와 인접한 서울북노회의 70세 이상 노년세대 비율은 19%였다.[34] 즉 서울권 교회와 지방권 교회의

[32] 기장 서울노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에 있는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이다.

[33]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노회, *제114회 정기노회 보고서* (서울: 서울노회, 2018), 54.

[34]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제103회 총회 보고서* (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2018), 570.

노령지수 차이는 10% 정도 나는 것을 볼 수 있다.[35] 이미 기장 교단은 초고령 교회로 진입하였다.

이런 교단의 상황 가운데 현재 노년세대는 교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 현재 교회는 급속하게 늘어나는 노년세대와 반대로 다음세대와 장년세대는 빠르게 감소하는 현실 가운데 놓여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년세대는 공경과 부양의 대상인 은퇴세대이며 동시에 은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 사역을 내려놓을 수 없는 세대이다. 교단 농어촌 교회에서는 교인 전부가 노년세대인 교회가 허다하다. 이런 교회에서 노년세대의 위치는 과연 무엇이라 이름지어야 할까? 과연 이 상황에서 교회는 그들에게 어떤 응답을 할 수 있을까?

[35] 서울노회의 70세 이상 노년세대 인원은 총회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이에 직접 전화로 전수조사를 한 것이다.

Chapter Ⅲ
연구 방법론과 연구방법(Methodology and Methods)

앞 장에서는 노년세대의 위치(position)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논하였다. 유교적 가부장제의 변화, 사회적 상황 그리고 기장 교단 내에서 노년세대의 현주소를 통해 노년세대에 작용하는 내-외적 조건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교회 노년세대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려 한다. 이를 통해 노년세대가 스스로 말하는 자신의 위치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심층 면담을 통한 질적연구를 실시하였다.

A. 심층면담 방법 및 과정(In-Depth Interviews and Their Process)

이 프로젝트는 교회 내 노년세대의 이야기를 통해 교회가 노년세대를 향한 목회적 방향성을 재고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교육이라 할 때 다음세대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게다가 다음세대에 대한 교육은 교육자와 교육 대상자 사이의 상호작용, 피드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에 비해 노년세대는 교육의 대상이기보다 노년목회 프로그램의 참가자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는 기장 소속 서울지역 교회 중에서 노년세대만을 위한 목회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교회를 조사하였다. 서울지역 4개 노회(서울, 서울북, 서울남, 서울동노회) 191개 교회 중 노년세대관련 목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회는 19개 교회였다. 19개 교회 모두 경로대학, 희망대학, 문화센터 등의 이름으로 노년세대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내가 과거 사역하던 교회와 거의 비슷했다. 그 내용은 주 1회 간단한 예배와 말씀, 점심식사, 노래교실, 레크레이션 등이다. 이들 교회 프로그램의 공통점은 교회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노년세대가 참여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모든

교회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주체는 목회실 또는 목회자 그룹임을 확인했다. 내가 과거 교회에서 시행하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다음세대 교육은 목회자와 교회 구성원이 함께 소통하며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 게다가 전 세대에 걸쳐 다음세대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다. '다음세대는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교회!' 등의 표어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다음세대에 대해 모든 세대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그들의 교육을 준비하고 시행함에 있어 교육 대상자, 부모, 목회자가 서로 목회적 방향성을 공유하며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노년세대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 대상자인 노년세대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노년세대가 교회 교육의 참석자의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노년세대도 교육의 주체로 분명히 포함되어야 한다. 노년세대를 교육 대상자로만 인식하는 기존의 구조에서 벗어나야만 노년세대도 다시 교회의 주체로 회복될 수 있다.

노년세대에 대한 목회적 방향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이 프로젝트에서는 현상학적 질적연구 방법론을 사용할 것이다. 현상학적 질적연구란 "인간의 체험을 살피고 그 체험 속에 존재하는 경험의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36] 이 프로젝트에서는 노년세대와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삶의 자리를 목회적 영역으로 이끌어 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으로 심층 면담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

심층 면담은 "참여자의 삶과 경험을 그들의 언어와 관점으로 이해하기 위해 면담자와 대화하는 것"이다.[37] 심층 면담의 목적은 단순히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

[36]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Ⅱ :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90.
[37]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 : Bicoleur*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323.

참여자와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생생한 삶의 경험과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의미를 이해하는데 있다.[38] 내가 심층 면담을 하고자 하는 노년세대는 최소 65년 이상의 삶을 살아온 이들이다. 게다가 그들은 오랜 기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 온 교인이기도 하다. 노년세대에게 심층 면담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과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노년세대가 그들의 경험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해왔는지 분석하고 교회와 목회자가 귀 기울여야 할 '그들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드러내고자 한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심층 면담은 가장 적절한 질적연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심층 면담을 통해 노년세대가 교회에 원하는 사항을 단순히 열거하지는 않는다. 다만 심층 면담을 통해 그들의 인터뷰를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앎의 자리를 삶의 자리로 이끌어 냄과 동시에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하는지 추론할 것이다.

나는 심층 면담을 진행하는 구체적 방법으로 반구조화된 면담 가이드에 의한 면담을 진행하였다. 반구조화된 면담 가이드에 의한 면담이란 연구자가 만든 면담 가이드에 의해 면담을 진행하지만 면담 시 면담자가 범할 수 있는 유연성과 융통성을 적절하게 유지-통제하는 면담형식이다.[39] 반구조화된 면담 가이드를 작성하는 이유는 구조화된 질문으로는 참여자가 살아온 삶과 신앙의 이면까지 들여다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비구조화된 면담을 하기에는 면담의 내용이 구체화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적절하게 개방형 질문을 사용함으로써 면담의 적절한 유연성과 융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면담 가이드에 의한 면담을 진행할 것이다.

---

[38]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 : Bicoleur*, 324.

[39] Ibid., 326.

심층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는 ‘지오르지(Giorgi)’의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심층 면담을 위한 개방형 질문은 다음과 같다. 개방형 질문을 사용한 이유는 참여자의 삶의 정황과 그들의 삶에 대한 의미를 더 깊이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질문은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첫째, 지나온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 둘째, 주일 일상에 대한 이야기 셋째, 교회에서 자신의 위치와 교회에 대한 바람이다.

1-1.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1-2. 지나온 신앙생활 중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1-3. 지금까지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은 어떻게 해 오셨는지요?

1-4.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자녀들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고 계신지요?

1-5. 직분에서 은퇴 후 교회에서 이전과 달라진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2-1. 현재 주일에 집에서부터 교회,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벌어지는 일상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2-2. 현재 주일에 교회에서 비슷한 연령대의 교인들과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3. 2-2의 장소가 있다면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누시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2-4. 2-3의 대화 내용이 자신의 신앙생활에 미치는 좋은 영향과 좋지 못한 영향에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3-1. 현재 주일 이외에 교회를 방문하는 요일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떠한 이유로 교회를 방문하시는지요?

3-2. 현재 교회에서 본인의 위치가 어떤 위치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3-3. 현재 교회에서 하실 수 있는 사역이나 하고 싶은 사역이 있다면 어떠한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3-4. 교회에 바라거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목회자, 장로, 평신도 등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나누어 말씀하셔도 됩니다.

B. 연구 참여자(Research Participants)

심층 면담의 참여자는 내가 속한 기장 서울노회 소속 3개 교회(A교회, B교회, C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65~70세 이상의 노년세대 교인들이다. 나는 A교회 3명, B교회 3명, C교회 6명 총 12명을 면담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은 각 교회에 협조 요청을 하고 주중(월-금요일) 면담이 가능한 교인 중 교회 목회실에서 추천한 이로 구성하였다. 면담일정을 평일 가능한 인원으로 제한한 이유는 내가 주말 교회사역에 참여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정한 참여자는 여성 9명, 남성 3명이다. 성별이 여성으로 치우친 이유는 의도적인 구성이 아닌 우연적인 구성이다. A교회와 C교회는 현재 노년세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회이고 B교회는 그렇지 않다. 세 교회 모두 노년세대가 전 교인 구성의 40%를 넘는 초고령 교회이다. 12명의 참여자 중 1명을 제외한 모든 참여자가 자녀가 있고 대부분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자녀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참여자는 4명이고 나머지 7명은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자녀세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참여자가 많은 이유는 이 프로젝트가 노년세대의 자녀세대에 대한 시각에도 깊은 관심을 두고 있기에 주로 자녀세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이다.

심층 면담은 A교회와 B교회, C교회의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학교와 지도교수의 연락처를 공개하여 면담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때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보호와 비밀유지를 동의서에 명시하였고 개인 정보 또한 연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만을 기재하며 모든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할 것을 공지하였다. 참여자는 연구 참여 중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에 대해 일부 혹은 전체 답변을 거절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즉시 연구 참여를 중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렸다. 면담을 통해 취득한 녹취와 기록은 본 프로젝트와 관련 '아티클(article)'을 작성할 때만 사용할 것을 명시하였다. 모든 자료는 최종 프로젝트가 완성 된 후 12개월 이내 파기할 것을 참여자에게 알렸다. 면담 장소는 참여자가 고령임을 고려하여 소속한 교회나 원하는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이 모든 사항에 대해 학교의 기관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8/2/2018, 2018-001)을 받아 진행하였다. 면담 기간은 10/12/2018 부터 11/24/2018까지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1~2회 실시하였다. 심층 면담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의 기본 정보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연구 참여자의 기본 인적사항

참여자	나이	신앙 연수	직분	가족교회출석	성별
참여자 1	71	모태신앙	권사	같은 교회 출석	여
참여자 2	73	40년	권사	같은 교회 출석	여
참여자 3	73	38년	권사	같은 교회 출석	여
참여자 4	74	36년	장로	다른 교회 출석	남
참여자 5	66	12년	집사	다른 교회 출석	남
참여자 6	65	20년	집사	출석 하지 않음	남
참여자 7	71	모태신앙	권사	다른 교회 출석	여
참여자 8	70	9년	집사	다른 교회 출석	여
참여자 9	77	모태신앙	권사	자녀 없음	여
참여자 10	72	모태신앙	권사	다른 교회 출석	여
참여자 11	73	20년	집사	다른 교회 출석	여
참여자 12	70	40년	권사	같은 교회 출석	여

C. 연구 절차(Research Process)

일반적인 현상학적 자료 분석 절차는 자료의 검토, 의미나 주제의 유출, 의미나 주제 단위로 진술을 통합, 의미나 주제 단위로 묶인 자료에 대한 성찰, 의미나 주제에 대한 통합적인 구조적 진술의 구성으로 진행한다. 첫째, 자료의 검토는 수집된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읽고 그 안에 포함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둘째, 의미나 주제의 추출은 발견된 의미와 주제를 범주화하는 작업이다. 셋째, 의미나 주제 단위로 진술을 통합하는 것은 범주화된 의미나 주제 단위의 진술들을 따로 묶어 여러 개의 의미 단위를 구성하는 것을 뜻한다. 넷째, 의미나 주제 단위로 묶인 자료에 대한 성찰은 의미나 주제 단위로 묶인 각각의 의미 단위에 대해 성찰하여 그것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미나 주제에 대한 통합적인 구조적 진술의 구성은 각각의 의미 단위에 대해 성찰하여 그 의미나 주제에 대한 개념화를 하는 것이다.[40]

이러한 분석 절차를 기본으로 하여 나는 심층 면담의 내용을 지오르지의 연구 방법을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 지오르지의 현상학적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면담에서 녹음한 파일을 듣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사본을 읽는다.
2. 각각에 필사본에 대해 직관적으로 분석, 파악하고 반성한다.
3. 각각의 필사본 속에 있는 의미의 단위들을 파악한다.
4. 필사본에 있는 각각의 의미 단위와 관련된 진술들을 다시 묶고 재기술한다.
5. 주제들을 밝히기 위해 모든 참여자 전반에 걸쳐서 각각의 의미에 관해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반성한다.
6. 각각의 불변의 주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유형을 분류한다.
7. 참여자에게 유효성을 확인한다.
8. 모든 진술들을 종합한다.[41]

이러한 심층 면담 및 질적 연구 방법은 참여자의 체험을 듣고 그들의 현재 교회 내의 위치를

---

[40]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I: Methods*, 110.

[41] Ibid., 107.

파악하는데 매우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면담을 진행하기 앞서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노년세대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내려놓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선입견이 참여자들의 경험과 정체성을 미리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질적연구에서는 '에포케(epoché)'라 하는데 면담 전 작업한 에포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참여자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2. 참여자는 현재 교회의 장년세대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3. 참여자는 담임목사 및 부담임목회자에게도 아쉬운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4. 참여자는 교회 내에서 스스로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5. 참여자는 교회가 노년세대에게 공경과 부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6. 참여자는 교회의 여러 사역들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ChapterⅣ
연구 결과 및 해석(Research Data and Analysis)

이 프로젝트에서는 12명의 노년세대 교인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 면담을 통해 나온 진술로부터 노년세대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인식을 도출해 냈다. 나는 12명의 참여자의 필사본을 수차례 읽고 명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전화를 통해 다시 확인했다. 심층 면담 내용을 지오르지의 연구방법을 따라 내용분석, 각각의 의미단위를 도출하였다. 면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총 3개의 범주를 도출해 내었는데 각각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순종의 혼용으로 인한 순종의 이데올로기화' 둘째, '주일, 반복성의 일상' 셋째, '단절, 외로움의 세대'이다. 면담 내용은 총 24개의 의미 단위로 요약하였고, 이를 11개의 주제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11개의 주제를 6개의 구성요소로 다시 묶어 3개의 범주를 도출해 냈다. 모든 내용은 〈부록 2〉에 첨부하였다.

A. 순종의 혼용 - 순종의 이데올로기화(Mixed Obedience-Ideologization of Obedience)

심층 면담을 진행하면서 많이 들었던 단어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순종'이다.

〈참여자 1〉

> *저는 그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결혼 후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요.*

〈참여자 3〉

> *1985년 7개월 간 병마와 싸우면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치유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뒤론 순종하는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

〈참여자 6〉

교인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하고, 목사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에 분란이 없어지게 되죠.

〈참여자 1〉, 〈참여자 3〉, 〈참여자 6〉의 답변을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그런데 나는 이 단어가 쓰이는 맥락을 보면서 의미의 일관성이 없음을 발견했다. 〈참여자 1〉의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시어머니에 대한 순종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참여자 3〉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의미한다. 〈참여자 6〉의 순종은 무려 세 가지의 의미를 지닌다. 여기에서 나는 참여자들이 가지는 순종의 의미에 따라 그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현재 노년세대로서 교회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 말해 달라는 질문에 세 명의 참여자는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

〈참여자 1〉

당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당회가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갔으면 해요. 그래야 평신도들이 교회에 순종할 수 있어요..

〈참여자 3〉

교회에서 뭐라도 해야 한다면 해야하지 않을까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야죠… 개인적으로는 상담공부를 더 해서 마음이 아픈 사람을 돌보고 싶어요..

〈참여자 6〉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교인들이 목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교인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그 분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참여자 1〉은 순종을 교회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 당회의 일관성 있는 목회적

방향성을 요구하며 그것에 대한 순종으로 말한다. 〈참여자 3〉이 말하는 순종은 어떤 사역을 부탁하는 교회, 즉 목회자의 말을 따르는 의미로 사용한다. 〈참여자 6〉는 하나님을 따르는 의미로서 순종을 말한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나 흔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참여자의 답변에서는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순종에 대한 개념을 엿볼 수 있다. 그것은 기독교적 순종의 의미와 유교적 가부장제의 순종의 의미가 혼용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적 의미로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뜻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분의 의에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 이것은 분명 특정한 사람이나 권위에 대한 따름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 정의와 평화 그리고 사랑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42] 문제는 이러한 순종의 의미를 참여자가 면담 내용 속에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는 면담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그들이 각기 다른 의미의 순종을 구분해서 사용한다는 인상을 받지 못했다. 또한 면담 당시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상황이나 의미에 대해 구분하지 못했다. 녹음 파일과 필사본을 반복해 확인하면서 나는 면담 참여자들이 순종에 대해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지점에서 의식화되어 있고 고착화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기독교적 의미에서 순종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이다. 그런데 이런 순종의 의미가 교회에 순종한다든지, 목회자에게 순종한다든지, 장로에게 순종한다는 의미로 사용될 때, 여기에는 어떠한 외부적인 힘이 가해진다고 보아야 한다. 외부적인 힘은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사상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외력에 의해 순종의 의미가 변질 된다는 점인데, 이것을 '이데올로기화'라고 말할 수 있겠다.

[42] 강남순, *21세기 페미니스트 신학: 주제와 과제*, 345.

강남순은 마르크스가 규정하는 이데올로기를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정당화해주는 광범위한 의미의 '지식체계'는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착취하거나 기만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마르크스는 지배자에게 이용되는 왜곡된 이념들을 '이데올로기'(ideology)라고 규정짓는다. 마르크스가 개념화한 이데올로기는 중성적인 개념이 아니며, 이미 부정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데올로 분석은 피지배자가 자신의 현실을 올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허위의식(false consciousness)'에 어떻게 사로잡히는 가를 설명해 준다.[43]

그렇다면 순종이라는 단어에 대해 이데올로기화된다고 말할 때 지배자-피지배자의 관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참여자들이 교회에 대한 순종, 목회자에 대한 순종을 언급했다고 해서 교회와 교인, 목회자와 교인을 지배자-피지배자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국 순종에 대한 이데올리기화는 지배자-피지배자로 규정하는 어떠한 외부적 힘이 존재해야만 성립하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한국 사회를 지배해 온 유교적 가부장제라고 본다. 가부장제는 남성이 가족에 대한 절대적 권리와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사회, 국가 그리고 온갖 조직에서도 관계의 모형이 되어 왔다. 이는 사회, 경제, 정치, 종교 등 전 영역에서 남성을 수장으로 하여 그에게 의존하고 지배받는 것을 합법화하고 강화해 왔다.[44] 가부장제는 부계 중심의 가계를 중시하고 남자아이를 선호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나이에 따른 위계, 성별에 의한 위계 등 수많은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특별히 가부장제에서 가장 억업받는 이는 여성이다. 여성은 가부장제 아래에서 부계 중심의 가계에서도 밀리고, 남아 선호 사상에서도 밀리고, 결혼을 해서도 시댁에 종속되는 등 그 어디에서도 주체적인 인간으로 존재할 수 없었다. 여성이나 나이 어린 사람을 가부장제 아래에서 피지배자로 인식하게 한 기재는 놀랍게도 앞선 면담 참여자들이 말한 '순종'이다.

---

[43] 강남순, *21세기 페미니스트 신학: 주제와 과제*, 343.

[44]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양성평등위원회, *생명다리 이어가기-성 평등을 위한 교회지침서* (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 2015), 10-11.

가부장제에서 순종은 그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이다. 여성이 남성을 의존하고 동시에 남성에게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부장제를 하나의 지배이념으로 강화하게 한 중요한 기재가 된 것이다.[45]

노년세대의 순종에 대한 관점을 분석할 때 나는 기독교적 순종이 가부장제적 순종으로 환치되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참여자들이 순종을 말하는 방식에 있어서 전혀 어색함을 느끼거나, 의미의 구분을 두고 있다고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적 순종이 가부장제적 순종으로 혼용되는 과정을 거쳐서 고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 순종의 혼용으로 인한 의미의 변질이 교회 내에서 세대 간 소통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은 심층 면담에서 순종해야 할 대상으로서 하나님(또는 말씀), 목회자, 교회를 언급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과 담임목사, 교회를 동등한 위치(position)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곧 담임목사의 뜻에 순종하는 것, 교회를 이끌어가는 당회의 입장에 순종하는 것을 뜻한다. 가장의 뜻에 따르고, 모든 말에 절대 복종하는 가부장제의 순종과 똑같은 위계 구조를 가지게 된 것이다. 교회에서 일반적인 가부장제적 의미의 순종을 논할 때 그 단어를 언급하는 대상으로 여성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심층 면담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참여자 중 남성이 2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볼 때 교회 내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성별에 관계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자 4〉

> *막내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며느리가 순종하지 않아요. 많이 속상합니다..*

---

[45] 강남순, *21세기 페미니스트 신학: 주제와 과제*, 348-49.

〈참여자 11〉

> *25년 전 교통사고로 상처를 하고 아이들이 일곱살, 열살 때 재혼을 했지요.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성인이 되서는 아들이 다니지 않고 있어요… 제 아들이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4〉가 말하는 순종은 가부장제적 의미의 순종을 의미한다. 〈참여자 11〉의 순종은 넓게 해석해서 기독교적 의미와 가부장제적 의미를 모두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답변을 통해 이미 자녀세대들의 순종에 대한 이해가 노년세대의 이해와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이미 그들의 자녀세대에게 가부장제적 순종은 이미 거부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기독교적 순종이 가부장제적 순종으로 이데올로기화된 데에는 노년세대의 가부장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그들의 자녀세대는 그 순종을 거부한다. 순종의 동일시에서 오는 이데올로기화에 대한 노년세대와 자녀세대의 이해가 분명히 다르게 된 것이다. 더군다나 순종의 혼용으로 인해 사용되어 온 교회에 순종, 목회자에 순종 같은 개념도 가부장제적 순종과 함께 거부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자녀세대가 유교적 가부장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 할 수는 없다.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가부장제의 산물이 너무나 많다. 다만 순종이라는 단어를 통해 노년세대와 자녀세대가 교회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B. 주일, 반복성의 일상(Sunday, Routineness of Life)

〈참여자 2〉

> *저는 (주일에) 혼자만 교회에 나와요. 오전 10시 15분 집을 나서서 11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합니다. 여신도회실에서 차를 마시며 잠시 담소를 나누고 중보기도단 모임을 갖고 집에 돌아가면 오후 3시쯤 됩니다. 거의 일정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참여자 4〉

저는 집에서 10시 전후로 나옵니다. 예배 20분 전에 교회에 도착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여신도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하고, 3부예배를 드리고 이른 저녁을 교인들과 함께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참여자 6〉

교회에 9시에 도착합니다. 모든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 연습을 하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3시쯤 됩니다.

〈참여자 8〉

저는 오전 10시 10분에 딸과 함께 교회로 출발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고 친교실에서 1여신도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오후 2시 희망대학에 참석합니다. 마치면 다리가 불편하신 교우를 집에 내려주고 집으로 갑니다. 저녁식사는 꼭 집에서 해요.

〈참여자 12〉

저는 10시에 집을 나섭니다. 걸어서 교회까지 10분 거리입니다. 11시 예배 후 식사를 하고 오후예배까지 교인들과 탁구를 칩니다. 예배를 드리면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으로 가고 있는 중독자 모임에 참석합니다… 그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저녁 9시쯤 됩니다.

여기에는 지면 상 다섯 명의 참여자의 면담 내용만 수록했는데, 총 12명의 면담 참여자 중 1명을 제외한 11명이 거의 비슷한 동선으로 주일 일상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조금 다른 내용은 식사 후 일정이었는데 주방봉사, 오후예배 참석, 희망대학 참석, 성가대 연습 등이었다. 하지만 주일 오후 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간다는 사실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다른 한 명은 교회 오후 일정을 마치고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으로 가고 있는 중독자 모임에 참석하여 봉사를 한다고 답변했다. 면담 참여자들의 주일 일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단순하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 후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며 다시 예배를 드리거나 맡은 사역에 참여했다가 돌아가는 것이다. 참여자 중 점심식사 후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은 늘 오후예배가 끝나는 시점까지 교회에 머물러 있었고 모든 공식적인 교회 일정이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는 일정이었다. 〈참여자 7〉은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

〈참여자 7〉

> *저희 같은 교인들은 주일엔 거의 교회에서 지냅니다. 집안의 경조사 아니고서는 늘 똑같은 일정이지요.*

심층 면담에 응한 모든 응답자들의 소속 교회는 젊은 세대보다 노년세대가 월등히 많은 초고령 교회이다. 면담에 응한 대부분의 참여자는 소속한 교회의 모든 주일 일정에 참석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서 한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면담 참여자들은 교회가 제공하는 예배나 사역에 참석자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실질적으로 예배를 구성하는 예배위원이나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예배나 모임에 회중으로 참석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의 면담 내용을 보자.

〈참여자 5〉

> *저는 주일에 새벽기도회부터 참석해요. 주일에 있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모든 모임에도 같이 참여해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교회 일정에 참석하는 거에요.*

〈참여자 11〉

> *우리 교회는 일할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도 봉사를 할 일이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주일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있어요.*

〈참여자 5〉와 〈참여자 11〉은 교회를 위해 자신이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정에 참석하거나 예배에 참석한다고 말하고 있다. 교회에는 수많은 예배와 모임, 교육 프로그램, 행사 등이 존재한다. 여기에서 노년세대가 교회의 예배나 모임 등에 참석자로서만 기능을 한다면 이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교회의 많은 사역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당회나 목회실의 영역이다. 그리고 목회자는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신도회에 역할을 맡긴다. 이것이 일반적인 교회의 사역 준비이다. 그런데 노년세대만큼은 모든 과정에서 빠지고 마지막 그 사역이나 행사가 시행될 때 회중 석에 앉아 자리를 채워 주는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었을 때, 교회 내의 청년세대와 장년세대의 사역에 과부하가 걸리는 현상을 이전 교회에서 많이 경험하였다. 어떤 행사가 끝나고 그것을 준비하느라 녹초가 되어 있는 목회자나 신도회 혹은 청년세대에게 돌아오는 것은 노년세대가 건네는 '수고했네'라는 말 한마디와 회식을 위해 조용히 건네주는 봉투들 뿐이다.[46] 교회는 예배와 교회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 교인들의 신앙이 성숙해지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교회의 젊은 세대는 그런 행사를 마치면 신앙이 성숙해 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탈출을 꿈꾸기 시작한다.

노년세대는 주일 교회의 모든 일정에 참석한다. 그것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신앙생활이라고 칭찬받아야 할 일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그러한 노년세대를 보며 교회의 장년세대와 청년세대는 그것을 본받아야 할 신앙 유산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거의 모든 교회에서 청년세대와 장년세대의 비중이 노년세대에 비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

[46] 청년들에게 '수고했네'라는 격려라도 해 준다면 다행일텐데, 나는 부목사 시절 교회의 큰 행사(부활절, 감사절, 창립기념일, 성탄절 등)를 마치고 지친 청년들과 음식을 준비한 젊은 여신도들에게 행사평을 하는 노년세대를 많이 목격했다. 실수가 있었다면 어떻고 음식이 입맛에 좀 맞지 않았으면 어떤가? 왜 그러한 일들에 대해 노년세대는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한편으로 노년세대의 신앙생활이 신앙의 본보기가 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년세대는 자신이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사역에 참석하는 것이라 여긴다. 그렇다면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 대여섯 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일상의 반복이 아닐까? 주일 노년세대의 일정은 그들의 신앙의 변화와 성숙을 전제하지 않는다. 나는 노년세대가 교회에서 참석자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에 대해 교회가 노년세대에 대해 이미 성숙했다고 변화하지 않을 세대라고 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노년세대에 대한 교회의 목회적 방치이다. 목회적 방치는 그저 아무 것도 하지 않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수없이 많은 예배와 사역, 행사 가운데서 그들을 변화하는 신앙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성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목회적 방치인 것이다. 결국 노년세대가 교회를 위해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매 주일마다 반복되는 '반복성의 일상'일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C. 단절, 외로움의 세대(Alienation, The Age of Loneliness)

월간 *목회와 신학*에서는 2018년 2월 9일부터 22일까지 '한국 교회 성도의 신앙 및 목회자의 신앙 유형과 신앙 실태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2018년 4월호에 게재하였다.[47] 여기에서 일반 교인과 목회자에게 각각 성도의 신앙 성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을 묻는 질문이 있었다. 일반 교인은 자신의 신앙 성숙에 영향을 끼친 사람 중 50.8%가 가족, 21.4%가 목회자라고 답변했다.[48] 같은 질문에 대해 목회자는 교인의 신앙 성숙에 영향을 끼친

---

[47] 목회와 신학, "한국 교회 성도 및 목회자의 신앙 유형과 신앙 실태 조사," *목회와 신학* no. 4 (April, 2018): 53-73.

[48] 가족 50.8%를 세분화 하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 23.6%, 배우자 17.7%, 아버지 5.7%, 형제/자매 3.8%

사람으로 목회자를 61%, 가족을 18.9%로 답변했다.[49] 이는 목회자라면 다소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결과인데, 목회자 스스로 교인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교인 스스로 생각하는 영향력에 1/3정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통계가 한국 교회와 노년세대를 향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통계를 통해 본다면 그동안 목회자는 스스로 교인의 신앙 성숙에 대해 많은 역할을 해왔다고 오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그동안 한국 교회가 교회 중심의 목회, 목회자 중심의 목회로 교인의 신앙 성숙을 이끌어 왔다는 반증이 아닐까? 또 하나의 흥미로운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교인들에게 자신의 신앙 성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교회 활동을 묻는 질문에서 무려 62%가 설교를 꼽았다는 사실이다.[50] 한국 교회가 대체로 담임 목회자의 설교 중심 목회인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설문이 있는데, 2017년 3월 9일부터 29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같은 해 4월에 발표한 갤럽 조사에서 미국인 4명 중 3명은 그들이 교회를 출석하는 주된 이유가 설교라고 대답했다.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설교는 성서에 대해서 가르치는 설교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설교는 그들의 삶에 직접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설교였다.[51]

나는 이 부분에서 비롯한 목회자들의 오해가 교인의 신앙 성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목회자 자신을 선정했다고 생각한다. 목회자들의 오해는 바로 목회의 중심 사역을 교인의 신앙 성숙과 동일시 해 버린 것이다. 월간 *목회와 신학*의 설문조사 결과로 볼 때, 교인의 신앙 성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바로 가족이다. 특별히 19-29세까지는

---

[49] 목회와 신학, "한국 교회 성도 및 목회자의 신앙 유형과 신앙 실태 조사," 65.

[50] Ibid., 69.

[51] Lydia Saad, "Serman Content Is What Appeals Most to Churchgoers," *GALLUP*, accessed January 14, 2019, https://news.gallup.com/poll/208529/sermon-content-appeals-churchgoers.aspx.

어머니의 신앙 교육 영향력이 43%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52] 교인의 신앙 성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가족이라는 사실과 청년세대의 신앙 성숙에 특별히 어머니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사실, 교인의 신앙 성숙에 목회자의 영향력이 21% 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는 결국 성숙한 신앙 교육이 교회와 가정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나는 참여자와의 면담에서 노년세대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 왔는지를 물었다.

〈참여자 1〉

> *저는 (자녀의 신앙교육 및 신앙에 대한 대화를) 한 달에 한 두번 정도 말하는 것 같아요. 따로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제가 주일 교회에 가면 아이들(자녀)이 왔는지 안왔는지 확인을 해요.*

〈참여자 2〉

> *특별한 대화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저 가끔 전화를 하는 정도입니다.*

〈참여자 7〉

> *이미 장성하여 따로 가정을 꾸렸기에 지금은 신앙교육이랄 것은 없어요.*

참여자들은 현재 자신의 삶에서 자녀세대에 신앙교육을 못하고 있거나, 중단된 것으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참여자 7〉의 답변에 표현되어 있다. 이미 노년세대의 자녀세대는 대체로 따로 가정을 꾸려 그들의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인 것이다. *목회와 신학*의 설문 결과에서 청년세대의 신앙 성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어머니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의 노년세대의 자녀들은 신앙에 대한 부모의 영향을 받는 청년세대를

---

[52] 목회와 신학, "한국 교회 성도 및 목회자의 신앙 유형과 신앙 실태 조사," 62.

지나 이미 장년세대가 되어 버렸다. 결국 장년세대는 노년세대의 신앙교육을 벗어나 현재 자신들의 자녀세대인 다음세대에 대한 신앙을 책임져야 하는 세대가 된 것이다. 또한 사회적 주거환경의 변화로 인해 노년세대와 장년세대는 별도의 가구를 구성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년세대는 더 이상 자신의 자녀인 장년세대에게 신앙에 대해 교육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나는 이것을 신앙교육의 단절이라고 표현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앙교육의 단절이 노년세대에 대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참여자 6〉

> *할 수는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을 위해 물러나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나가라 해도 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을 교회가 키워가야 해요.*

〈참여자 6〉은 자신을 스스로 나가라 해도 떠나지 않을 세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노년세대에 대한 초상(肖像)이 아닐까? 물론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개인적 신앙에 대한 확고함을 표현한다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온 세대는 이제 교회에 머물 수밖에 없는 세대가 되었다. 그들은 자녀세대와 신앙에 대한 대화나 교육 또한 단절되었다. 게다가 노년세대와 자녀세대는 대부분 주거 형태도 서로 따로 떨어져 살아가고 있다. 결국 교회에 가장 오래 머물러 가장 고귀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였던 노년세대가 결국 가장 외로운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Chapter V
논의(Discussion)

나는 심층 면담을 통해 노년세대가 현재 한국 교회에서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알아보고 분석하였다. 앞서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교회의 노년세대는 첫째, 순종의 혼용으로 인한 기독교적 가치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기독교적 순종의 의미가 유교적 가부장제와 만나 가부장제적 순종의 이데올로기로 환치되어 있는 현실에 놓여 있다는 말이다. 중요한 사실은 노년세대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녀세대와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의 자녀세대 또한 마찬가지다. 자녀세대에게 부모세대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유교적 가부장제 아래에서 공경과 부양의 대상이다. 또한 교회도 목회적으로 노년세대를 공경과 부양의 세대로 규정하고 있다. 가족관계, 신앙관계에 있어서 노년세대에 대한 인식이 같아지면서 기독교적 순종의 의미가 유교적 가부장제의 순종과 혼용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화 과정을 통해 교회는 유교적 가부장제의 뿌리 깊은 차별을 고착화해버린다. 결국 사회에서의 부모-자녀세대 사이의 갈등은 교회에서 노년-장년세대의 갈등으로 이어진다. 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목회적으로 적절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노년세대는 현재 주일을 반복성의 일상으로 지내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 대여섯 시간씩 되풀이되는 일정이 개인의 신앙 성숙과는 연관이 없이 그저 반복적으로 지나간다. 교회의 모든 일정에 참여하는 노년세대이지만 그들은 준비된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는 참석자일 뿐이다. 게다가 그저 맛있게 식사를 해 주면 좋으련만 반찬타박을 한다. 메뉴를

선정하는 과정,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년세대는 제외되어 있다. 참석자로서의 노년세대. 이러한 일상은 메뉴를 선정하고 식탁을 준비하는 세대에게 교회를 도망쳐야 할 곳, 탈출해 버려야 할 곳으로 인식하게 한다. 노년세대의 신실한 신앙생활은 '주일, 반복성의 일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저 다른 메뉴와 식탁 준비에만 몰두하고 있다.

셋째, 노년세대는 단절의 세대이다. 자녀세대와 신앙에 대한 대화가 단절되었다는 의미다. 현재 노년세대의 자녀는 교회의 장년세대이다. 그들은 노년세대와 독립한 가정을 꾸리고 있고 대부분 자신의 자녀를 양육한다. 노년세대는 자신의 자녀세대와 신앙에 대한 대화를 할 수 없는 여건에 놓여있다. 결국 지켜야 할 것은 자신의 삶을 통해 지켜온 신앙뿐이다. 교회가 떠나라고 해도 남을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규정하는 세대가 되어 버린 노년세대에게 교회는 그들만의 골방을 만들어주고 있다.

심층 면담을 통해 분석한 노년세대의 위치는 교회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초라하다. 점점 증가하는 노년세대를 보며 교회는 그저 그들이 참석할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에만 치중한다. 그것을 준비하는 목회자들과 다른 세대 교인들은 신앙의 성숙을 뒤로 한 체 지쳐가고 있다. 앞으로 노년세대는 필연적으로 증가한다. 하지만 노년세대가 증가하는 만큼 장년세대나 다음세대가 증가할 가능성은 그리 커보이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교회는 노년세대에 대한 목회적 방향성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 이미 수많은 교회에서 이전의 목회적 방향성을 가지고 증가하는 노년세대를 맞이하고 있다. 교회가 그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목회적 의미 부여는 그들을 그저 공경과 부양의 세대로 규정하는 것과 그들을 위한 골방을 만들어 주는 일뿐이다. 나는 한국 교회의 노년세대의 목회적 방향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언한다.

A. 탈 가부장제를 너머 가부장제의 해체를 향해(Toward the Dismantling of Patriarchy Beyond Anti-Patriarchy)

'탈 가부장제를 너머 가부장제의 해체를 향해'… 2019년 한국의 상황에서 한국 교회의 목회 슬로건으로 걸어 놓기에는 엄두가 나질 않을 표어라는 것을 나조차도 인정한다. 그러나 이제 한국 교회는 가부장제에 대한 분명한 목회적 관점을 지니고 노년세대를 대해야 한다. 이것은 노년세대의 삶과 그들의 신앙에 대한 확신을 무시하고 깨뜨려 버리려는 것이 아니다. 특별히 교회의 가부장제 요소를 해체하는 일은 현대 사회에서 다음세대와 장년세대를 교회의 중심으로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할 것이다. 강남순은 교회 내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의 해체를 위한 방법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교회 내 모든 가부장제 문제들에 대한 문제화를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공론화 할 것, 둘째, 교회 내 가부장제에 의해 소외된 주변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 셋째, 교회가 실천적 차원에서 가부장제에 대한 자기 비판적 성찰을 확대해 나갈 것, 넷째, 여성과 더불어 남성을 대상으로 한 가부장제와 성차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페미니즘 담론과 페미니즘 신학에 대해 철저하게 토론하는 문화를 활성화 해 나갈 것이 바로 그것이다.[53]

또 기장 총회에서 발간한 *성 평등을 위한 교회 지침서*에는 교회 내 가부장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적한다:

> 교회는 사랑과 정의, 평화와 생명을 일구는 데 걸림돌이 되는 가부장제에 대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교회 교육, 신학 교육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질문이 생겨야 깊이 박힌 가부장체제의 뿌리를 잘라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당연시해오던 일상의 용어와 오랜 기간 당연한 것으로 여겨 유지해오고 있는 각종

[53] 강남순, *21세기 페미니스트 신학: 주제와 과제*, 354-56.

제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합니다.[54]

기장은 그동안 인권과 약자들을 위한 사회참여 복음화에 앞장 서 온 교단이다. 문제는 이런 기장 조차도 목회적으로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교회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교회 내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가부장제의 그림자를 드러내는 지점일 것이다. 나는 궁극적으로 한국 교회가 목회적 방향성으로 가부장제의 해체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그러나 현재 교회는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있다. 교회가 가부장제의 해체를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없다면 다음 방법으로 현재 가부장제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실천적 방향을 목회적 관점에 담아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부장제를 벗어나기 위한 실천 가능한 교회의 목회적 관점은 첫째, 순종이라는 단어의 기독교적 의미를 복원하고 원위치시키는 일이다. 기독교적 순종의 의미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 분의 가치를 내 삶의 가치로 삼는 것이다. 결국 기독교적 순종의 의미를 복원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순종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에만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순종의 쓰임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목회자의 부단한 노력과 끈기가 필요하다. 한국 교회 목회에 있어서 설교의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목회자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그 외에 목회자에게 순종하라든지, 교회에 순종하라든지, 당회에 순종하라든지,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라든지 등의 표현은 철저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설교뿐만 아니라 심방, 상담 등 목회 전 영역에 걸쳐 설령

[54]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양성평등위원회, *생명다리 이어가기-성 평등을 위한 교회지침서*, 11.

사석에서 농담이라 할지라도 순종이라는 단어의 쓰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별히 교회 내 목회자 그룹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 지속적인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대화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일상화되어 있는 순종의 혼용에 대해 늘 지적하고 바로잡는 일에도 힘써야 한다. 이런 노력은 교회 내에서 모든 교인이 수긍할 때까지 순종이 혼용되어 사용되어 온 시간만큼 지속되어야 한다.

둘째, 특별히 노년세대에 대해 순종이란 단어의 사용을 금하고 대체어를 사용해야 한다. 노년세대에 대한 순종이란 단어의 사용은 앞서 언급한 하나님 외에 사용하는 예시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이 프로젝트가 노년세대에 대한 목회적 관점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기에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다. 노년세대에게 순종하라 할 때 이것은 순종의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화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기에 더욱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가부장제 아래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년세대에 대해 사용해 왔던 공경과 부양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이다. 순종이라는 단어 대신 노년세대를 공경하고 부양하라 한다면 그것 또한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와 의미에 있어 다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그동안 교회에서 순종에 대해 잘못 사용해 온 대상에게 사용할 적절한 단어를 고민해 내는 일이다. 예를 들어 교회에 순종하라 했을 때, '교회에 **하라'에 어울릴 만한 적절한 목회적 용어를 목회자가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교회에 순종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대체할 단어를 고민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오히려 순종이라는 단어의 복원 과정을 훨씬 단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입니다'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신도회의 이름이나 여러 방의 이름을 지을 때, 성서에 나오는 특정한 인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바울선교회라든지, 에스더회, 한나회, 바나바실 등이 그것이다.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진 인물에 대한 삶과 그의 신앙을 연상하기 쉽다. 그렇기에 한나회는 그 안에 모인 교인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나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무의식중에 종용당한다. 나는 부목사 시절 에스더 신도회 헌신예배에 에스더서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다. 나는 특별히 에스더회에 속한 신도들에게 에스더 같은 신앙인이 되어 달라고 수없이 외쳤었고 그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였다. 그들이 그저 에스더회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난 그들에게 에스더서를 본문으로 설교를 했고 에스더가 되어달라 했던 것이다. 만약 에스더 신도회 이름이 제1여신도회 였더라면 나는 그들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던 모든 교인들에게 에스더의 믿음과 신앙을 선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가부장제 아래에서 이름은 가장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지어주는 것이다. 딸을 그만 낳으라고 '말년'이라 이름지음 당했던 여성은 그 이름 때문에 죽을 때까지 가부장제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름은 많은 경우 가부장제의 함의를 투영할 수 있기에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의도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55]

마지막으로 다섯째, 교회 내 어떠한 부분에서 가부장제적 요소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을 때마다 목회자가 교인 앞에서 교회 차원의 회개 선언을 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첫 여성 장로가 선출되거나 다수의 당회원이 여성으로 구성되었을 때, 처음으로 여성 목회자를 청빙하게 되었을 때, 목회자는 목회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교인에게 그동안

[55] 성서에 나온 이름으로 신도회의 이름을 짓는 많은 교회 중 남신도 노년세대가 속한 신도의 이름은 많은 경우 바울신도회이고 여신도 노년세대의 경우 한나회인 경우가 많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정황과 신앙의 경륜과 상관없이 바울과 한나가 되어야만 한다.

그렇게 해 오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공개적 회개를 선언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부장제적 메커니즘'을 끊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56] 교회 내 가부장제적 요소의 해체를 향해 가는 과정은 그것이 노년세대의 목회적 관점만을 수정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노년세대에 대한 갈등은 교회 내 수많은 가부장제적 요소와 복합적으로 결합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교회의 가부장제적 모습을 해체하는 과정은 노년세대의 과제를 포함한 목회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야 한다.

B. 주일, 반복성의 일상- '다름의 공동체(Community of Alterity)'로 향해 가기(Sunday, Routineness of Life-Going Towards Community of Alterity)

노년세대는 주일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11시 전후에 드리는 예배를 마치고 많은 교인들이 집으로 돌아가지만, 오후까지 남아 예배를 드리고 기타 교회의 프로그램에 끝까지 참석하는 교인은 많은 숫자가 노년세대이다. 교회는 그들을 향해 존경과 칭찬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교인들도 그런 신앙인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심층 면담을 통한 노년세대의 주일 일상을 단순화하여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이 나열할 수 있다.

1. 예배-식사-대화-다른 예배
2. 예배-식사-대화-여러 사역들
3. 예배-식사-대화-다른 예배-저녁식사

지난 주일에도, 이번 주일에도, 다음 주일에도 이 과정은 매주 반복된다. 가끔은 별도의

---

[56] 강남순, *21세기 페미니스트 신학: 주제와 과제*, 353-54.
강남순은 '가부장제적 메커니즘'을 여성들이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또한 가정, 사회, 교회 안에서 '훌륭한 여성'의 위치가 주는 칭송과 안정성을 상실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부장제적 구조를 비판없이 포용하는 것으로 말한다.

행사가 자리를 차지한다. 중요한 것은 노년세대는 거의 모든 일정에 참석자의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예배의 참석자, 식사자리의 참석자, 대화의 참석자, 또 다른 예배나 사역의 참석자가 노년세대이다. 예배만 봐도 그렇다. 예배가 하나님과 회중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삶을 말씀에 투영하며 그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 행동의 힘으로 살아가는 과정이라 한다면 교인은 예배를 통해 무엇인가 계속 변화하고 성숙해져 가야 한다.[57] 주일에 최소 한 두번의 예배를 드리며, 신앙에 대한 많은 대화를 나누고, 교회가 배치한 사역에서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노년세대의 신앙은 더 이상 변화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다. 노년세대가 그렇게 모든 일정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계속해서 가다듬고 성숙해 가려는 노력이 아니라 자신들이 긴 세월을 지켜 온 신앙생활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그들에게 나이들어도 시들지 않는 아름다운 꽃다운 신앙을 지녔다고 치켜 세운다. 그러나 일면에는 그 꽃다움이 생화가 아닌 조화로서의 모습일런지도 모른다. 그것은 변화하지 않고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지만 변화가 없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다.

교회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예배자라 부른다.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을 사역자라 부른다. 교회는 언제부터인가 교인들에게 자꾸 정체불명의 다른 이름을 붙여 준다. 이미 내가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무리라 일컫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예배를 드려야 하고, 사역자가 되기 위해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 얼핏 보면 교회는 교인을 위해 많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목회적 방향성의 부재로 인해 수많은 교인을 그저 참석자로 전락시켜 버리고 마는 경우도 허다하다. 나는 주일의 일상이

[57] 박해정, “Healing and Transformation Through Preaching and Worship” (lecture, D.Min. Intensive,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Claremont, CA, 06/5/17~06/09/17).

반복되는 노년세대를 바라보며 그들이야 말로 교회의 목회적 방향성에서 제외된 대상임을 확인한다. 자신의 신앙생활의 결과물로 남은 여생을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노년세대에게, 주일이 반복성의 일상이 되어버린 노년세대에게 교회는 어떤 목회적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까?

2017년 6월 CST D.Min. Intensive에서 강남순은 '다름(alterity)', '동질성(sameness)'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였다. 우리가 공동체의 방향성을 설정함에 있어서 '동질성의 공동체(community of sameness)'에서 '다름의 공동체(community of alterity)'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동질성의 공동체'는 같은 목적이나 추구하는 바에 따라 결집한다. 만약 동질성이 없는 누군가가 있을 경우, 주변인으로 밀려나게 된다. 우리와는 '다른(different)' 당신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다른'은 비교 대상이 존재하는 다름을 의미한다. 그리고 늘 다수의 힘, 다수의 의견이 공동체의 주된 흐름과 기준이 되고 소수의 의견을 주류에 벗어난다는 이유로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동질성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다름'이다. 이 '다름'은 대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름이다. 이것은 개별성이나 고유성에 가까운 다름이다. 만약 100명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있을 때, 97명의 가진 동질성으로 인해 나머지 3명이 '차이(difference)'를 이유로 소외된다면 '개별성이나 고유성과 가까운 다름(alterity)'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100개의 '다름'이 존재한다고 할지라고 그들을 '다름의 공동체'로 이끌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58]

'다름의 공동체'가 교회 노년세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교인들의

[58] 강남순, "Gender-related Conflicts, Healing, and Transformation in the Korean Church and Society" (lecture, D.Min. Intensive,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Claremont, CA, 05/29/17~06/02/17).

동질성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포용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동질성의 공동체'는 '우리와 그들' 사이에 배제와 포용의 경계를 분명히 긋는다. 우리와 다른 당신, 우리와 다른 그들이 존재한다. 우리와는 같은 신앙 공동체의 사랑을 나누고 배려하지만, 그들과는 늘 배타성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즉 '공동체'라는 단어는 포용과 배제라는 정치적 행위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그러나 성서는 모든 구성원을 '그리스도의 몸'이라 칭한다. 한 사람의 고통은 온 몸의 아픔과 고통이 되고 모든 사람의 고통이 된다.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 '다름의 공동체'는 교회가 모든 교인들을 포용하고 나아가는 지구적 공동체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59]

한국 교회는 노년세대에 대해 공경과 부양의 시각으로 목회적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나이, 사회-경제적 위치, 신체적으로 모두 주변부로 들어서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들을 위해 머물 수 있는 방을 만들고, 식사를 차리며, 그들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것은 노년세대를 교회에서 불편함이 없이 편안하게 지내게 하려는 목적이다. 노년세대에 대한 이러한 '다른' 시각은 동시에 교회의 중심세력으로 장년세대를 교회의 대세로 자리잡게 한다. 분명 교회는 노년세대를 바라 봄에 있어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 하지만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다름의 시각을 '다름'의 시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다면 교회가 노년세대를 '다름'의 관점으로 바라 볼 때, 어떠한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인가?

첫째, '나이차별주의(ageism)'의 양면성을 극복할 수 있다. 나이차별주의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뿌리 깊게 작동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나이차별주의라고 말할 때, 나이가

---

[59] 강남순, *코즈모폴리터즘과 종교: 21세기 영구적 평화를 찾아서*, 66-68.

어린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차별을 당하는 상황을 연상하기 쉽다. 나이차별주의가 지배의 논리에 의해 작동되기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60] 하지만 나이차별주의는 가부장제에서도 나타나는 대표적인 차별이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으니, 나이든 사람에 대한 역차별 또한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것을 차별의 양면성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회의 노년세대에 대해 많은 청년세대와 장년세대가 많은 사역, 행사 준비를 함으로서 고단함을 느끼며 차별을 당한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노년세대에 대한 멸시와 냉소를 동시에 가진다. 노년세대에 의해 차별당한다고 느끼는 대상이 노년세대에 대해서는 그들의 존재에 대해 비판적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은 상대방을 나와는 '다른' 존재로 인식하기에 나타나는 것이다. 역으로 노년세대가 느끼는 차별의 지점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년세대는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온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신이 교회의 어른으로서 대접받아 마땅하다는 가부장제적 사고를 지니고 있다. 이 두 부분이 연결되어 과거의 자신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장년세대와 청년세대들을 또 '다른' 시각으로 비판하고 차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차별의 양면성으로 인해 노년세대와 그 외 세대들은 각각 '다른' 존재, 생각이 '다른' 존재, 더 나아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혹은 적기 때문에 서로에게 어쩔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노년세대를 '다름'의 관점으로 바라 본다면 그들을 존재 자체의 세대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노년세대가 장년세대와 청년세대를 바라보아야 하는 관점의 변화이기도 하다.

둘째, 교회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는

---

[60] 강남순, "Gender-related Conflicts, Healing, and Transformation in the Korean Church and Society" (lecture, D.Min. Intensive,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Claremont, CA, 05/29/17~06/02/17).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회의 모습과 동일하게 혹은 더 부패해 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회는 대형화, 현대화, 분업화, 세분화되어 있다. 대형교회의 목회는 교인 수와 재정의 규모에 따라 평가받는다. 목회가 아닌 교회를 '경영'하고 있다. 투자 대비 결과를 따지고, 효율성을 논한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일 뿐이다. 현재 자본주의 체제에서 '다른' 존재는 환영받지 못한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존재이며, 경제적 가치가 없는 존재이다. 다수를 위해 희생당해도 되는 존재이다. 그렇기에 더욱 '다름'의 관점이 필요하다. '다름'의 관점으로 상대방을 바라 볼 때, 그 대상이 소수이든 다수이든 나를 존재하게 하는 다른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름'의 관점은 상실해 가는 교회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평등한 교회 공동체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평등은 선포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실행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보장한대로 모두가 평등한 국가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모두가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평등을 실천하고, 실행하고 있지만 모든 국민이 그렇게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불평등을 야기하는 중요한 지점이 서로 '다른' 사고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교인들을 만나면 마치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같은 우려마저 든다. 여기에 '다름'의 관점을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한 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회가 '다름'의 관점을 갖는 것은 노년세대에 대한 기존의 목회적 방향성을 큰 틀에서 바꾸어 내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에 걸림돌이 있으니 다수의 강한 힘이 주된 흐름이 된다는 사고는 넓은 시각에서 가부장제적 사고와 맞닿아 있고, 그것이 교회의 노년세대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교회라는 공동체(community)가 가부장제의 요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공동체 자체에서 가부장제로 인한 또 다른 주변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것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교회의 노년세대의 상황을 '동질성의 공동체'가 아닌 '다름의 공동체'의 시각으로 전환하여 바라볼 필요가 있다.

C. 신앙의 단절- 용서와 나와 너, 그리고 무조건적인 연민의 시선(Alienation of Faith, Forgiveness, You and Me, and Unconditional Compassion)

내가 심층 면담을 진행한 12명의 참여자 중 70대 이상인 참여자는 10명이었다. 출생 연도로 보자면 1943년에서 1948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출생 연도로 미루어 볼 때 그들은 어린 시절 한국전쟁을 비롯하여 한국 현대사의 모든 장면을 보고, 겪으며 살아온 세대이다. 그들은 대부분 40대의 자녀를 두고 있다. 자녀와 신앙에 대한 대화나 신앙교육을 묻는 질문에 그들은 각각의 답변을 했다. 하지만 그 답변을 면밀히 분석했을 때 결국 일관된 결론에 다다랐다. 그것은 면담에 참여한 노년세대가 현재 자녀세대와는 신앙에 관한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어떤 참여자는 자녀들이 교회에 왔는지 늘 확인한다고 했고, 어떤 참여자는 이제는 자녀들과 신앙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자녀의 교회 출석을 확인하는 노년세대, 자녀와 더 이상 대화하지 않는 노년세대의 모습을 보며 현재 노년세대의 현주소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보는 사람들은 한국 교회의 노년세대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너무나 많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그들의 힘이 막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젊은 교인들이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고, 그로 인한 세대 갈등이 크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지적은 분명히 맞는 말이다. 현재 많은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

말이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오히려 노년세대를 위한 골방을 더 잘 만들어드리고 있지 않는가? 더 풍성한 식탁을 차려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이런 교회의 방향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노년세대가 지닌 기득권은 1940년대에 태어나 질곡의 한국 현대사를 거쳐 자녀를 양육하며 장성시킨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닌가? 유교적 가부장제 아래에서 살아온 노년세대가 그 나이가 되어 그 정도 힘을 갖고 당당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말이다. 하지만 나는 노년세대가 가지고 있는 당연함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말이다. 기득권도 가지고 있고, 당당해 하는 노년세대는 현재 신앙에 대해서 만큼은 자녀들과 대화없이 살아가고 있다.

기독교 역사가 예수의 죽음 이후 신앙의 선조들의 유산으로 이어온 것이라 할 때, 지금 노년세대에서는 신앙의 유산이 끊어질 수 있는 대화의 단절의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말이다. 단순히 신앙에 대한 대화의 단절만이 아니다. 사회적 주거 환경도 과거와는 다르다. 현재 노년세대는 자녀는 있지만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혼자 살거나 또 다른 노년의 배우자와 단 둘이 살고 있다. 이것도 단절이다. 이러한 단절의 결과는 무엇일까? 그것은 노년세대와 장년세대가 고민하는 신앙에 대한 인식, 교회에 대한 인식, 목회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현대 사회가 노년세대가 살아왔던 1900년대 중후반보다 사회적으로 평등한 구조로, 차별을 없애는 구조로, 가부장제적 요소들을 점차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이런 방향성으로 볼 때, 2019년을 장년세대로 살아가는 이들의 교회, 신앙, 목회자에 대한 인식은 그들의 부모세대인 노년세대가 장년으로 살아온 시대와는 분명히 다르다. 이런 의미에서 노년세대는 단절의 세대, 고립의 세대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힘에 상관없이 말이다. 나는 신앙의 단절에 놓여 있는 노년세대를

바라보는 목회자와 장년세대에게 새로운 목회적 방향성을 두 가지 큰 틀에서 제언한다. 그것은 첫째, '용서'이고 둘째, '나와 너, 그리고 무조건적인 연민의 시선'이다.

1. 용서(Forgiveness)

용서의 사전적 의미는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보아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과연 누구를 용서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어떤 것을 용서한다는 것인가? 이 프로젝트에서 신앙의 단절에 놓여있는 노년세대를 향해 목회자와 장년세대에게 제언하고 싶은 용서는 '형이상학적 용서'이다. 강남순은 *용서에 대하여*에서 '형이상학적 용서'를 "이 세상의 다층적 불완전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르상티망(ressentiment)'을 넘어서려는 의도적 노력"이라고 정의한다.[61] 인간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사건들-죽음, 질병, 육체적 쇠퇴, 스스로의 불완전성-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상처와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불완전성의 세계에 대한 용서가 바로 '형이상학적 용서'이다.[62] 강남순은 '르상티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 '르상티망(ressentiment)'은 분노나 분개를 의미하는데, 하나의 현상에 제한된 단순한 분노가 아닌 훨씬 복합적인 감정의 응어리라 할 수 있다. 복합적인 감정의 응어리는 복수, 악의, 시샘, 질투뿐 아니라 두려움과 의심, 자신을 번거롭게 한다고 느껴지는 대상이나 사람에 대한 증오와 무력감, 자존감의 상실,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에 늘 사로잡히는 것 등 수많은 감정이 오랫동안 내면에 축척된 것이다.[63]

나는 목회자와 더불어 노년세대의 자녀세대인 현재 교회의 장년세대가 '르상티망(ressentiment)'에 대해 용서를 선포해야 한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장년세대는 장년세대대로 그들이 노년세대와 함께 살아오며 수많은 '르상티망(ressentiment)'에 사로잡혀 있기

---

[61] 강남순, *용서에 대하여* (서울: 동녘, 2017), 156.

[62] Ibid.

[63] Ibid., 156-57.

때문이다. 목회자는 한국 교회의 상황에서 노년세대와 관련하여 말 못할 내면의 감정을 가져왔다. 그것은 목회의 모든 대상을 향한 것이도 할 것이다. 하지만 노년세대와 관련해서 목회자는 다음세대나 장년세대와는 다른 감정을 축적해 왔을 수 있다. 장년세대는 노년세대를 부모로 모시고 살아온 세대이다. 나 조차도 '모신다'를 대신할 단어를 이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부모에 대한 엄청난 복합적인 감정이 존재한다는 뜻일 것이다. 유교적 가부장제가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서 다른 시대를 살아온 노년세대를, 장년세대가 되어 바라본 다는 것 자체가 수많은 감정 덩어리를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왜 '형이상학적 용서'가 필요한 것인가? '형이상학적 용서'의 핵심이 '나 자신의 인간됨' 그리고 나의 '내면세계'가 파괴되지 않고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형이상학적 용서'가 나의 내면에 있는 복합적인 모든 감정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니다. '형이상학적 용서'는 이 세상과 내 주변, 그리고 나에게 일어난 수많은 일들이 지닌 문제점과 대면하고 이에 반응하면서도 결코 파괴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 '세계 안의 존재로서 나'의 인간됨을 지켜내기 위해 요청되는 중요한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64]

2. 나와 너, 그리고 무조건적인 연민의 시선(You and Me, and Unconditional Compassion)

신앙의 단절에 놓여 있는 노년세대를 바라보는 목회자와 장년세대에게 제시하는 두번째 목회적 방향성은 '나와 너, 그리고 무조건적인 연민의 시선'이다. 부버(Martin Buber)는 "사람은 하나의 실존일 뿐 아니라 하나의 '대화적' 실존"이라 말한다.[65] 따라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

[64] 강남순, *용서에 대하여,* 157–58.
[65] Martin Buber, *Ich Und Du 나와 너,* trans. 김천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189.

알려할 때 하나의 사람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사람과 사람 사이, 그것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핵심이다. 사람의 본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이것은 '너'를 통하여 사람은 하나의 '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나'는 주체가 되고, '너'는 또 하나의 주체가 된다. '너'가 객체가 아닌 또 하나의 주체가 되는 것은 '나'와 '너'의 관계를 인격적 만남으로 만드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66] 우리는 흔히 '나'를 주체라 생각할 때 상대인 '너'는 객체로 사고한다. '나'와 '너'의 다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너'를 대하는 태도다. 이런 의미라 한다면 교회에서 노년세대를 대함에 있어서도 '나'와 노년세대 사이에는 '나'라는 주체와 노년세대라는 객체 사이에 인식의 공간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부버는 '너'에 대해 그것은 객체가 아닌 또 다른 주체라고 말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나'는 '너'에 대해 주체로서의 존중을 가능하게 한다. 만약 교회에서 노년세대를 대할 때 그들을 또 하나의 각각의 주체로 인식한다면 노년세대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목회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단초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프로젝트에서 환대에 대해 깊이 논하지는 않는다. 다만 환대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목회자와 장년세대에게 제언한다. 환대가 가능하게 위한 전제는 바로 타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연민의 시선'이다. 목회자든 장년세대든, 이 프로젝트가 관심하는 노년세대든, 그 모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교회의 등록교인이 되는 교인의 외적 조건보다 중요한 실천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시선을 배우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향한 연민의 시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시선이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아 예수를 따른 것이 아니다. 예수가 자신을 바라 본 연민의 시선에

---

[66] Martin Buber, *Ich Und Du 나와 너*, 189-90.

의해 변화되었다.[67] 우리는 예수가 아니다. 우리는 예수가 될 수도 없다. 어쩌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예수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다른 표현일지도 모른다. 다만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사람들을 향해 지녔던 무조건적인 연민의 시선으로 교회의 노년세대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주었던 수많은 '르상티망'을 용서하고, 그들을 또 하나의 '나'로 생각하며 나와 너를 '나와 또 다른 나'로 인식하고, 그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연민의 시선'을 갖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노년세대에 대한 새로운 목회적 방향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7]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159-60.

Chapter Ⅵ
결론 및 제언(Conclusion)

나는 이 프로젝트에서 심층 면담을 통해 노년세대를 세 개의 범주로 분석하였다. 첫째, 노년세대가 '순종의 혼용'으로 인한 순종의 이데올로기화에 놓인 세대이고 둘째, '반복성의 일상'으로 주일을 지내는 세대이며 셋째, 자녀세대와 신앙에 대한 대화 단절로 인한 외로움의 세대라는 것이다. 첫째 범주에서는 기독교적 순종과 가부장제적 순종을 혼용함으로써 순종의 의미가 이데올로기화되는 과정을 논하였다. 둘째 범주에서는 주일에 교회의 모든 일정에 참석하는 그들의 삶이 교인으로서 신앙의 변화가 없는 삶임을 밝히고 일주일에 한 번 반복되는 일상임을 논하였다. 셋째 범주에서는 장년세대와 신앙에 대한 대화 없이 단절된 노년세대의 상황과 주거생활의 분리로 인한 그들의 외로움에 대해 논하였다.

이렇게 분석한 세 개에 범주에 대해 교회와 장년세대, 노년세대가 재고해야 할 목회적 관점으로 세 가지를 제언하였다. 첫째, '순종의 혼용'에 대해서는 교회 내 가부장제적 요소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섯 가지 실천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우선 교회는 순종의 기독교적 의미를 복원해야 한다. 노년세대나 교회, 혹은 목회자 등에 대하여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적절한 대체어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신도회나 여러 방의 이름에 성서 속 인물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교회내 가부장제적 요소들이 해소되었을 때마다 모든 교인 앞에 교회 차원의 회개를 선언해야 한다.

둘째, '주일, 반복성의 일상'에서는 노년세대에 대해 '다름'의 시선을 가질 것을 제시하였다. 그럼으로써 동질성의 폐해를 극복하고 '다름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나이차별주의(ageism)’에 대한 양면성을 극복하고, 교회의 본질을 새롭게 하며, 평등한 교회 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단절의 세대, 외로움의 세대인 노년세대를 향해 ‘형이상학적 용서’와 ‘나와 너’, 그리고 ‘무조건적인 연민의 시선’을 목회적 방향성으로 삼아야 함을 제시하였다. 형이상학적 용서를 통해서는 나의 ‘르상티망(ressentiment)’을 용서함으로 존재로서의 나를 새롭게 하며, ‘너’를 또 다른 ‘나’로 인정하고, 예수가 사람들을 바라보았던 그 시선을 가짐으로써 노년세대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관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교수위원회는 구두시험에서 한국 교회의 노년세대의 상황에 대한 이러한 결론이 단순하게 노년세대만의 문제가 아님을 조언하였다. 나 또한 노년세대의 여러 상황에 대한 갈등과 치유,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면서 노년세대의 문제가 이 세대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한국 교회의 노년세대의 상황은 나이가 들어 은퇴한 ‘그들’만의 상황이 아닌 ‘우리’의 상황으로 인식해야만 전 교회적인 변화가 가능한 것이다. 유교적 가부장제는 장년세대에도, 청년세대에도, 목회자와 교인 사이에서 오늘도 작동하고 있다. 반복성의 일상을 사는 교인들은 비단 노년세대뿐만이 아니다. 형이상학적 용서와 나와 너, 무조건적인 연민의 시선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결국 노년세대의 상황은 모든 세대와 연관된 매우 복합적인 전 교회적인 상황인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68]

나는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하나는 한국 교회 노년세대의 상황이 단순히 하나의 현상으로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한

[68] 교수위원회와 구술시험은 한국시간 13/03/19 6:00 a.m.에 ZOOM을 통한 영상통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구조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 한국 교회가 하루하루 닥쳐오는 목회적 상황에 매몰되어 노년세대의 목회적 방향성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명한 사실은 한국 교회의 노년세대가 앞으로 더욱 증가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현실 앞에 밀려오는 노년세대에게 교회가 적절한 목회적 방향성을 제시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깊은 우려가 생긴다. 중요한 점은 노년세대에 대한 목회적 방향성의 전환이 한 주 진행하거나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당장 교회 안에 눈에 띠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특별히 이 프로젝트가 한국 교회 노년세대에 대한 적절한 응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

첫째, 목회적 방향성을 재고하는 것은 연 단위, 월 단위, 주 단위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매주 이루어지는 예배, 때마다 달라지는 절기, 특별주일, 여러 행사 앞에 교회는 한주 한주를 버텨내는 것이 일상이 되어 버렸다. 한국 교회가 프로그램 중심, 행사 중심의 목회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년세대 목회의 방향성이라는 큰 주제를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 목회적 관점을 바꾸는 일은 세대를 인식하며 접근해야 할 일이다. 지금의 다음세대가 청년세대가 되었을 때 어떠한 목회적 환경을 조성할 것인지, 청년세대가 장년세대가 되었을 때 교회가 그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유산을 남길 것인지, 장년세대가 노년세대가 되었을 때 현재의 노년세대에 대한 여러 목회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지 등 1-2년이 아닌 세대의 구분으로 긴 안목의 목회 방향성 설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목회자에게 한국 사회에 만연한 가부장제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 이러한 교육은 모든 교회 구성원에게도 함께 해야 하는 것임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특별히 목회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들이 목회의 최전선에 있고,

교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가 가진 노년세대의 목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적 고민이 필수적이다. 한국 교회의 목회자 구성이 남성중심적인 현실을 볼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 비판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교회뿐만 아니라 교단이 앞장서서 사회에서 존재하는 포괄적 차별에 대한 교육, 폭력에 대한 교육, 가부장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교육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한국의 수많은 남성 목회자들은 자신이 가부장제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69] 이러한 부분에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까지, 그 불편함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될 때까지 목회자에 대한 교육은 계속되어야 한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노년세대에 대해 공경과 부양의 관점을 지녀왔다. 그 결과는 노년세대가 교회 내에서 어떤 자리매김을 하든지, 그들로 인해 다른 교인들과 어떠한 상황에 마주하는지 상관없이 그저 '잘' 해드리는 것이였다. 여기에서 '잘' 해드리는 것이란 노년세대가 어떠한 불만도 가지지 않고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The Doctor of Ministry in Practical Theology of Conflict, Healing and Transformation in Korean Contexts Program, Claremont School of Theology)을 통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노년세대에 대한 관점이 치유하고 변화해야

[69] 일례로 교단 총회 목회자 청빙게시판에 올라온 모 교회의 담임목사 청빙서류 중 일부를 소개한다. '2. 제출서류 2) 자기 소개서 – A4용지 1-2매 (사모님 포함 및 가족사항)' 나는 이 부분을 읽으며 주변 목회자들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이 교회는 40대의 목회자를 청빙한다고 했다. 하지만 단 한 단어 때문에 이 교회는 40대의 기혼 남성 목회자를 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것이 2019년 현재 한국 교회의 단면이다.

할 대상임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전에 가졌던 나의 노년목회에 대한 관점은 교회 안에서 맡은 수많은 사역 중의 하나일 뿐이였다. 그저 지난 주보다 한 명의 참석자를 더 늘리는데 의미를 두었다. 거기에는 어떠한 실천신학적 의미나 관점이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에서 공부한 여러 세미나와 프로젝트를 통해 노년세대를 향한 목회적 관점에 대한 학문적 의미와 신학적 의미, 그리고 사회학적 의미에서 분명한 이론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내가 앞으로 나아갈 사역의 방향성 또한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더 중요하게 깨닫게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나의 실천신학에 대한 이해가 변한 것이다. 내가 이전에 가진 실천신학의 의미는 목회에 도움을 주는 여러가지 방법론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실천신학이 '신학의 영역 외에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바로 서게 하고, 차별없이 공평한 하나님의 인격적 만남을 위해 노력하는 교회의 모든 노력'임을 깨닫게 되었다.

한국 교회 노년세대에 대한 목회적 방향성을 재설정하는 일은 단순하게 노년세대와 연관되어 발생하는 여러 갈등을 해소하는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사회 속에서 건강하게 자리매김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고, 더 나아가 국교(State Religion)가 없는 한국이라는 국가에서 하나의 종교로서 기독교가 지니는 의미를 새롭게 규정하는 일이다. 교회는 2019년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상황과 분리될 수 없다. 오히려 그 중심에 서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앞으로 교회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노년세대에 대해 건강한 목회적 관점을 가졌더라도 교회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일이라 하겠다. 노년세대에 대한 목회적 방향성의 재고는 사회 속에서 교회가 나아갈 길을 새롭게 제시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교인들에게는 신앙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할 것이다. 이천 년 전의 예수가 무리를 바라보던 연민의 시선을 우리가

기억하듯이 말이다. 이 프로젝트가 교회와 목회자에게, 노년세대와 자녀세대들에게 큰 영감과 장기적인 목회 방향성을 제시하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부록 A〉

연구참여 동의서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클레어몬트 신학 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eology, 1325 N. College Ave; Claremont, CA 91711) 목회학 박사 과정 중에 있는 장본 목사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 노년세대의 이슈에 대한 목회자의 방향성과 목회적 접근에 관한 질적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클레어몬트 신학 대학원에서 실천신학을 담당하시는 김남중 교수님의 지도아래 수행되고 있습니다. 논문과 관련하여 교수님과 연락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메일 njkim@cst.edu으로 연락하시거나 ***-***-****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신다면, 귀하는 인터뷰에 약 60분 정도 참여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인터뷰 진행 과정 동안 인터뷰 내용은 녹음하고 기록할 것입니다. 녹음된 모든 내용과 기록은 논문 연구와 이 논문에 연관된 아티클에만 사용할 것이고 반드시 익명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귀하의 교회에도 인터뷰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연구 참여에 어떠한 비용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이름, 이메일 등 개인적인 정보는 연구자료가 수집되는 기간 동안만 보관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 정보(이름, 연락처, 소속 단체나 교회 등)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입니다. 논문에 귀하의 인터뷰 내용이 기재될 때 귀하의 성함과 개인 정보는 모두 익명으로 기재함으로써 귀하의 권익과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귀하의 연구참여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귀하는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거절할 수 있으며 또한 어느 때든지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참여 철회는 귀하가 가지고 있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연구참여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단순하게 참여를 철회하시

기 바랍니다.

귀하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교회의 노년세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귀하가 면담에서 말씀하신 모든 사항은 교회 내 노년세대 비중이 높아지는 목회적 현실에 보다 적합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노년세대에 대한 새로운 목회적 방향성을 설정하게 하는데 공헌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연구와 관련한 질문이 있거나 귀하의 이메일을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다면 연구자 장본 목사의 전화번호 ***-***-**** 혹은 이메일 agbon@hanmail.net으로 연락바랍니다. 이 연구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기관윤리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검토를 받았으며 이 연구의 연구번호는 2018-001입니다.

만약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이 연구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다면 기관윤리 심사위원회 회장, 김두영 박사의 연락처인 ***-****-**** 혹은 viastar@hanmail.net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원하실 경우 익명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위에 설명된 정보를 읽었습니다.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나의 모든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 양식에 대한 사본을 받았습니다.

연구 참여자의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구참여자의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구자의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구자의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록 B〉

지오르지(Giorgi)자료 분석 결과: 의미단위, 주제 및 구성요소

의미단위의 요약	주제	구성 요소	범주
1. 나의 신앙이 하나님께 순종한 삶이었다는 생각	1.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1. 기독교적 순종의 의미	A. 순종의 혼용
2. 신앙생활을 시작한 계기가 교회를 다니는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다는 생각	2. 부모(시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	2. 가부장제적 순종의 의미	
3. 의붓 아버지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교회를 다녀야겠다는 생각	3. 목회자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		
4. 알콜 중독으로 인생의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	4. 교회에 순종해야 한다.		
5. 아내의 죽음에 상처를 이겨내야겠다는 생각			
6. 가족의 권유로 내 지병을 이겨내야겠다는 생각			
7. 사모님의 반복되는 권유에 보답해야겠다는 생각			

의미단위의 요약	주제	구성 요소	범주
1. 늘 그렇게 주일을 지내왔다는 생각 2. 교회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참여한다는 생각 3. 교회에서 말하는 훌륭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참석하려는 생각 4. 교회에 오지 않는 자녀를 볼 때 화가 난다는 생각 5. 자녀들에 대해 우리와 다르다는 생각 6. (노년세대가 젊었을 때와 자녀들의 지금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했던 신앙생활을 했으면 한다는 생각 7. 나이가 먹으면 말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 8. 대화를 많이 나누면 끈끈한 연대의식이 생긴다는 생각	1. 주일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 2.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에 빠져서는 안 된다. 3. 외로운 교인들에게 친구가 되주어야 한다. 4. 다르지만 나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1. 변화없는 주일 일정 2. 다른세대, 그러나 똑같은 신앙생활을 요구	B. 주일, 반복성의 일상

의미단위의 요약	주제	구성 요소	범주
1. 자녀가 다 장성했으므로 신앙에 대해 할 말이 없다는 생각 2. 자녀가 가진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깊어질 까봐 대화를 안 한다는 생각 3. 내 신앙에 대한 관점이 너무 뚜렷해서(세서) 무서워할까봐 되도록 말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 4. 외국에 있는 자녀의 경우, 신앙보다 삶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된다는 생각 5. 결혼한 딸이 천주교를 믿는 남자와 결혼해서 오히려 신앙에 대해 대화를 못한다는 생각 6. 내 생각이 다 큰 자녀들에게 잔소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 7. 자녀들의 교회 출석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 8. 옛날처럼 힘든 세상이 아니니 신앙생활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 9. (교회에서) 나가라도 해도 머물러 있겠다는 생각	1. 그래도 교회는 다녀야만 한다. 2. 부모(나)에게도 잘해야 한다. 3.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느니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1. 자녀와 신앙의 대한 대화 단절 2. 주거 형태의 단절	C. 단절의 세대

참고문헌

(Bibliography)

1차 자료(Primary Resource)

[한서]

강남순. *21세기 페미니스트 신학: 주제와 과제.* 서울: 동녁, 2018.

______. *용서에 대하여.* 서울: 동녁, 2017.

______.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21세기 영구적 평화를 찾아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______.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 : Bicoleur.*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______. *질적연구방법론Ⅱ :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통계청. *2017 인구주택총조사.* 서울: 통계청, 2018.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노회. *제114회 정기노회 보고서.* 서울: 서울노회, 2018.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양성평등위원회. *생명다리 이어가기-성 평등을 위한 교회지침서.* 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 2015.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제103회 총회 보고서.* 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2018.

____________________. *제101회 총회 보고서.* 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2016.

____________________. *헌법.* 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출판사, 2018.

[번역서]

Buber, Martin. *Ich Und Du 나와 너.* Translated by 김천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Calvin, John. *기독교 강요4 (상).* Translated by 고영민. 서울: 기독교문사, 2008.

Sunstein, Cass R. *Going to Extremes 극단에 끌리는가.* Translated by 이정인. 서울: 프리뷰, 2014.

[저널]

목회와 신학 편집부. “한국 교회 성도 및 목회자의 신앙 유형과 신앙 실태 조사.” *목회와 신학* no. 4 (April, 2018): 53-73.

[뉴스 및 웹사이트]

신동윤. “[탄핵 후폭풍, 세대갈등①] 싸움날라, 朴이야기 금기…부자 사이도 갈라놨다.” *헤럴드경제*. March 14, 2017.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314000115.

이현미. “한국 출산율, 세계 꼴지 수준… 삶의 질의 문제.” *중앙일보*. March 20, 2017.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3/20/20170320003204.html?OutUrl.

정재림. “가짜뉴스 놓고 응징-보복, 난장판 된 유튜브.” *CBS노컷뉴스*. October 5, 2018. http://www.nocutnews.co.kr/news/5040314.

Saad, Lydia. “Serman Content Is What Appeals Most to Churchgoers.” *GALLUP*. Accessed January 14, 2019. https://news.gallup.com/poll/208529/sermon-content-appeals-churchgoers.aspx.

2차 자료(Secondary Resource)

[한서]

강남순. *배움에 관하여*. 서울: 동녘, 2017.

______. *정의를 위하여*. 서울: 동녘, 2016.

______. *젠더와 종교: 페미니즘을 통한 종교의 재구성*. 서울: 동녘, 2018.

김균진. *헤겔 철학과 현대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0.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II. Writing*.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______. *질적연구방법론 IV. Case Studie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김은혜.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 윤리문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남기철. *현대신학해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노치준. *한국 개신교사회학: 한국 교회의 위기와 전망*.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8.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모선희, 원영희, and 최희경. *노년사회학=Social Gerontology*. 서울: 학지사, 2009.

박근원. *오늘의 교역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박상철. *노인의 사회역할 상실에 따른 대안적 교육목회*.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6.

박순오. *잃어버린 자아정체감의 회복: 노년기 자아통합감에 대한 목회상담신학적 고찰*.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5.

설은주 and 안미영.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의 여정*. 광명: 샬롬, 2013.

설은주. *고령화 시대의 노인목회*.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5.

우 정. *인문학에 노년의 길을 묻다*. 인천: JMG, 2015.

은준관. *실천적 교회론*. 서울: 한들, 2013.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5.

이정우. *주체란 무엇인가: 무위인에 관하여*. 서울: 그린비, 2009.

정웅섭. *현대 교육목회의 전개*.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1.

최한구. *마틴 부버의 생애와 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최효섭. *노년과 죽음*. 서울: 쿰란출판사, 1997.

한정란. *교육노년학: 노인을 위한, 노인에 관한, 노인에 의한 교육*. 서울: 학지사, 2001.

[번역서]

Brownung, Don S. *Practical Theology 실천신학*. Translated by 이기춘.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Millburn, Fields Joshua., and Ryan Nicodemus. *Minimalist 미니멀리스트*. Translated by 신소영. 서울: 이상미디어, 2015.

King, Nigel., and Christine Horrocks. *Interviews In Qualitative Research 질적연구에서의 인터뷰*. Translated by 김미영, 김윤주, 김려화, 박금주, and 지은주. 서울: 현문사, 2013.

[학위논문]

강혜정. “고령화 사회의 노인 커뮤니티 시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PhD diss.,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신병련. “노인대학을 통한 노인세대의 신앙활성화 방안 연구.” DMin project,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7.

이찬영. “노인교육목회를 통한 교회 활성화 방안.” DMin project,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06.

임지숙. “한국 노임들의 ‘가능한 자기(possible selves)’ 탐색과 삶의 만족 및 우울과의 관계.” PhD diss.,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5.

전민수. “치과용 CAD/CAM 스캐너의 반복성 및 재현성 평가 방법 개발=Repeatability and reproducibility evaluation of dental CAD/CAM scanners.” PhD diss., 경북대학교 치의대학원, 2014.

[저널]

강선보. “마르틴 부버의 평화 사상과 교육.” *한국교육* vol. 14, no.1 (November 1987): 195-210.

고범수. “위기에 던진 대화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 *현대종*교 vol. 113 (November 1982): 192-97.

김요섭,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칼빈의 교회의 역할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 *성경과 신학* vol. 52 (November 2009): 37-63.

최명희. “노년교육(3): 노인, 그들은 누구인가-노인 목회의 교육적 접근.” *교육교회* vol. 311 (March 2003): 55-59.

[사전]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철학대사전 上*. 서울: 동녘, 1989.